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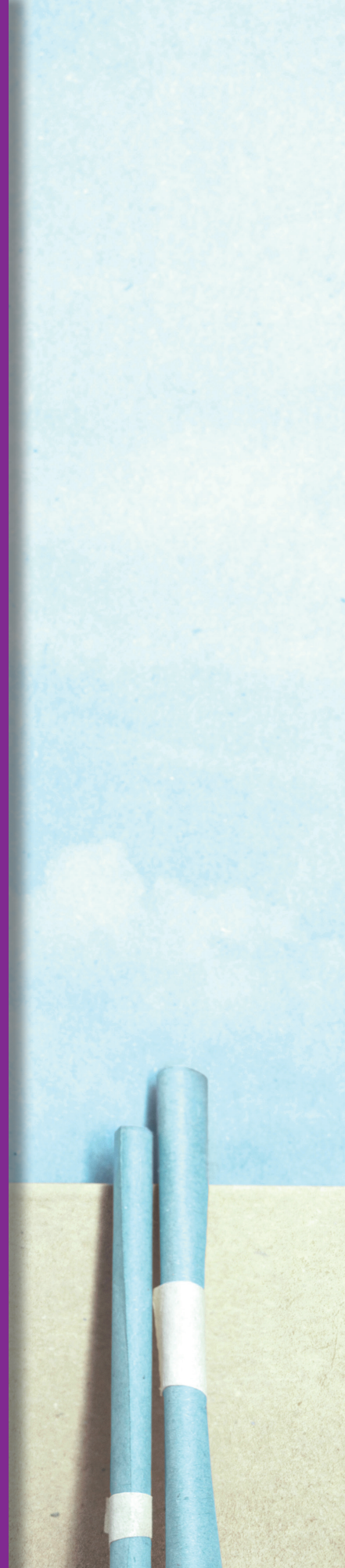
HELLO NEXEN

빙글빙글

Imagination

변화를 향해 굴러가는 것들, 나은 세상을 위한 움직임 - 1

상상



SPECIAL
THEME빙글뱅글:
상상

- 6 **24h 빙글뱅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
- 10 **포토제닉을 찾아라**
Hello NEXEN
Hello 2022
- 14 **일상을 깨우는 여행**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곳, 부여
- 20 **넥센인의 pick**
넥센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한 바퀴 달리기

- 26 **ISSUE ①**
더넥센유니버시티에 내려앉은
햇살과 노래, 그리고 행복
- 30 **ISSUE ②**
커피 향 가득한 선후배의 첫 만남
- 34 **ISSUE ③**
일본 모터스포츠
'Toyota 86/BRZ Race' 대회
첫 포디움 입상

- 36 **TIRE TECH**
부산광역시 해운대신도시점

한 바퀴 어울리기

- 42 **Color of NEXEN**
양산공장
- 46 **넥센 알고리즘**
넥센인이 추천하는 최애 앱 7선
- 50 **NEXEN CSR ①**
나를 지켜주세요. 북 커버 만들기
- 52 **NEXEN CSR ②**
사랑의 연탄 나눔
- 54 **NEXEN CSR ③**
저소득층 농산물 전달 및
현혈 캠페인
- 56 **필환경 로드**
음식을 쓰레기의 여정

한 바퀴 쉬기

- 62 **미래참견시점**
미래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IT
- 66 **트렌드가 뭘이오?**
X세대가 돌아왔다
- 70 **마음처방전**
무기력한 일상에
사람의 온기를 더하는
북 큐레이션
- 74 **별별 스포츠**
축구계의 전설을 향해
달려가는 세기의 라이벌!
- 76 **NEWS**
- 82 **함께해요!**

헬로우 넥센

2022년 <헬로우 넥센>에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끝없이 빙글뱅글 도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22년 1월 3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렬호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문화혁신팀
기획 및 출판 (주)대통기획 02-2269-3613 ISSN 2765-2904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헬로우 넥센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릿속 작은 상상이 세상을 바꿔갑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아이디어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길,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길 응원합니다

상상



Special Theme

Imagination

빙글뱅글 : 상상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는다

- 니체

세상을 바꾸는 상상이나 아이디어는 어느 순간 번뜩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꿈을 간직하고 지켜온 이들과
거머쥔 수 있는 오늘의 열매입니다.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늘 꿈꾸고 언젠가 반드시 이뤄질 거라고 상상하세요.
꿈이 현실로 한 발짝 가까워질 것입니다.



24h 빙글빙글

포토제닉을 찾아라

일상을 깨우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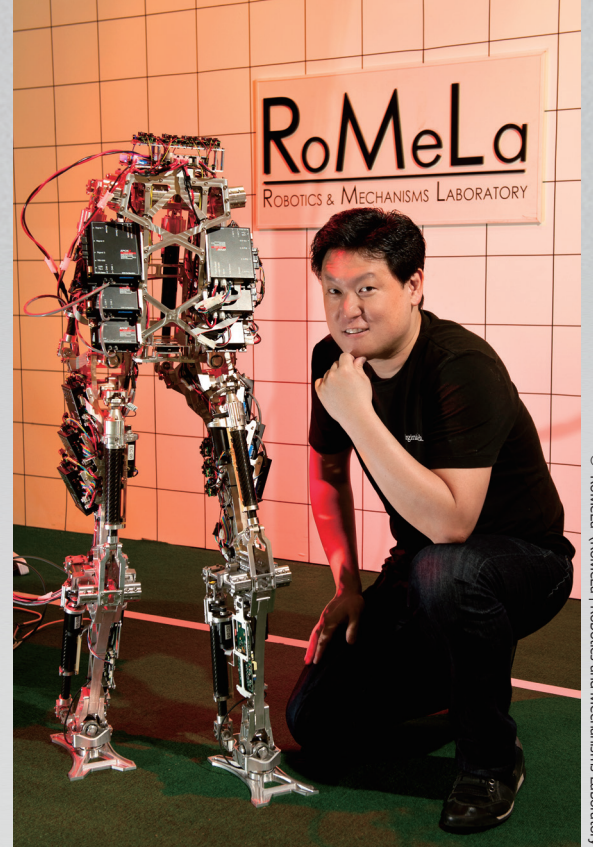
넥센인의 pick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아이디어를 잠자리 잡듯 낚아채야 하고 기록해야 한다. 작은 아이디어를 큰 아이디어로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다음 단계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Imagination In reality

데니스 홍 Dennis Hong은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로봇공학자로 현재 미국 UCLA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세계적인 로봇 연구의 메카 '로멜라(RoMeLa)'를 운영하고 있다. 특유의 뛰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로봇을 개발해 2009년 글로벌 과학 전문잡지<파퓰러사이언스>에서 '젊은 천재 과학자 10'에 선정되었다.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발한 로봇뿐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 무인 택배 로봇 개발 프로젝트 등 인간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도 협력하며 새로운 혁신을 이끌고 있다.



© "RoMeLa" (RoMeLa | Robotics and Mechanisms Laboratory

작은 아이디어를 큰 아이디어로



나는 항상 연필과 '아이디어 노트'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노트를 꼭 들고 다닌다. 일상을 관찰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 아이디어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변의 아무 종이에나 메모를 남길 때도 간혹 있는데, 낱장의 종이라 잊어버리기 일쑤여서 메모한 종이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저장해두기도 한다.

새벽 서너 시쯤 침대에 누워 잠이 들락말락 할 때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재미난 생각들을 '보기'도 한다. 이상한 삼차원 도형이며 여러 색깔의 다양한 모양들이 동동 떠다니다가 서로 엉키고 뒤집어지고 돌아가면서 신기한 동작의 매커니즘이 만들어진다. 찰나의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기 위해 험탁에 아이디어 노트와 작은 LED 전구가 달린 펜을 두고 잔다.

매일 눈을 뜨자마자 험탁 위 노트를 열어보고 "지난밤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거야?"라며 수수께끼 풀 듯 메모를 해독한다. 그러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면, 바로 서재로 달려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정리를 해놓는다. 특별히 사용한 곳도 없고, 어떻게 쓰이게 될지 모르는, 그저 단순히 재밌는 아이디어에 그칠 때도 많다.

이렇게 정리된 아이디어들은 필요한 순간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연구 제안서 등을 쓸 때 연구 과제가 내 연구 분야인지 평소 관심 있던 주제인지를 살피고 아이디어

노트와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며 적합한 게 있는지 찾아본다. 그렇게 찾아낸 아이디어를 이렇게 저렇게 구성하고 다듬어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어 연구 제안서를 제출한다.

다리가 세 개 달린 로봇 스트라이더도 이렇게 탄생했다. 대학원생 때 공원에서 한 아주머니가 여자아이의 머리를 땅아주는 모습을 보며 머리카락을 세 갈래를 나누어 저글링하듯 손가락 사이로 왔다 갔다하는 모습이 신기해 게임이나 퍼즐에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연필과 노트를 꺼내 스케치하고 간단히 메모했다.

이후 버지니아테크 교수가 되어 미국 해군연구소에서 새로운 종류의 기동성 높은 로봇에 관한 연구 제안서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대학원 시절의 아이디어 노트를 꺼내 머리를 땅는 스케치를 발견했다. 복잡하지만 자연스러운 그 움직임이 로봇의 다리 운동으로 겹쳐 보였다. 다리가 꼬이는 문제는 한 발짝씩 디딜 때마다 몸체가 180도 뒤집는 걸로 해결했다. 하나가 풀리자 기관총에서 총알들이 '따따따따' 나오듯 이후 과정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우주전쟁》에 나오는 기괴한 삼발이 외계인 로봇과도 흡사하고 카메라 삼각대처럼 생긴, 다리가 세 개지만 사람처럼 걷는 스트라이더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졌다.



생각을 바꾸면 새 길이 열린다. 이렇게 다른 해결책을 찾고 시도하며 직접 만지고 부수고 고쳐본 경험들은 지금 내가 로멜라에서 기상천외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듣고 배우고

협업하라



머리 땅는 모양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듯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도 실제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걸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다음 단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결국 아이디어를 완성하는 것은 체계적인 지식이다.

의학도 로봇공학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다. 나는 영화 <아이언맨> 속 토니 스타크의 아크 원자로처럼 체내에서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하는 '체내 반영구 인공심장'을 개발하고 있다. 몸 곳곳에 부착한 여러 센서에서 들어오는 신체 정보로 심장 박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러한 인공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로봇공학뿐 아니라 의학 전문 지식도 필요하다. 어떤 기능이 있는 로봇을 만드느냐에 따라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 공학, 재료, 생물 등 수많은 학문과 접목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학문의 전문가와 팀을 만들어 협업하는 것이 좋다.

협업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물론,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대화가 될 만큼 깊이 있고 폭 넓은 지식을 갖춘 '자형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개발할 로봇에 어떤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추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문제를 해결해줄 전문가를 찾는 것도 한층 수월해진다. 그만큼 더 좋은 팀을 짤 수 있고,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협업이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체내 반영구 인공심장 프로젝트의 경우, 공학계와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도 다들뿐더러 의사들은 로봇 쪽 기술을 모르고, 로봇공학자들은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한다. 결국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의사들은 로멜라를, 로봇공학자들은 병원을 주기적으로 견학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보다 긴밀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 재미있게
상상하고
생각을 바꿔라



나를 움직이는 것은 열정, 재미, 이런 것들이다. 나의 에너지는 재미있는 것, 열정적인 것으로부터 나온다. 나를 설레게 하고 신나게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안에 꼭 빠져든다. 내가 자주 불가능한 일에 뛰어드는 것도, 상상 속 가상현실로봇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은 거기서 희열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만든 로봇을 설명할 때도 '이 로봇이 재미있는 건'이란 표현을 자주 쓴다. 그만큼 새롭고 기발하다는 뜻이다. 이미 만든 로봇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는 누구도 상상 못 한 로봇을 만들어 세상에 선보이는 일이 좋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내 로봇을 두고 창의적이라고 말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기분이 좋다. 하지만 창의성은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있다. 그걸 이끌어내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잘 모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로멜라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창안했다. 브레인스토밍 세션에는 규칙이 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판할 수 없다!" 비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분명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꺼내는 순간에는 유용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반응이 별로면 어찌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웃음거리가 되면 어떻

게 해.' 이렇게 비판이 두려워 자기방어에 골몰하는 사이 개발한 생각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브레인스토밍 세션이 모두 좋게 끝나지는 않는다. 주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머릿속 생각들을 어떻게 유용한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지를 많은 사람과 함께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바꾸면 새 길이 열린다. 이렇게 다른 해결책을 찾고 시도하며 직접 만지고 부수고 고쳐본 경험들은 지금 내가 로멜라에서 가상현실로봇을 만들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발상을 전환해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아이디어'와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 선입견을 지우고, 같은 것도 다른 틀을 바라보고 사고할 줄 알아야 한다.

로봇이 해야 할 일은 매우 복잡적이다. 특정한 용도만 염두에 두고 개발하면 로봇 기술을 발전할 수 없다. 사람을 돕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의 범위는 사실 매우 무궁무진하다. 우리의 예측 범위 밖에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나는 로봇이 더 많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런 기술이 구현되는 상상을 한다.

Imagination In reality



Hello NEXEN Hello 2022

기분 좋은 상상으로 2022년을 열다

2021년을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12월의 어느 날, 평소 보지 못했던 낯선 부스가 더넥센유니버시티 3층 카페 한 편에 자리 잡았다. 생경한 풍경에 어리둥절함도 잠시, 호기심을 느낀 넥센타이어 임직원 몇몇이 부스로 다가왔다. 부스의 정체는 바로 보다 특별한 2022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포토부스! 기분 좋은 상상만으로도 절로 웃음이 지어졌던 그날의 현장을 공개한다.



품질경영팀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팀

넥센타이어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호찬 부회장





디자인팀 조훈 책임, 조진현 선임연구원
건강을 일상을 위하여!
예전의 일상을 빨리 되찾길 바랍니다.



모터스포츠팀 김남희 책임, 안현준 책임
엔페라 레이싱팀,
2022년 종합우승 가자!
파이팅!!



하나, 둘, 셋, 찰칵!

낮선 사람들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끼를 뽐내는 1인들, 소품을 함께 나눠 들고 인생 샷을 찍는 단짝들, 한 프레임 안에 나오기 위해 어깨를 접어가며 불편한 자세도 마다 않는 단체들까지. 포토부스에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해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포토부스의 주제인 '기분 좋은 상상'으로 2022년을 열다'에 맞춰 준비된 다양한 소품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베스트 문구는 단연 '코로나 탈출'이었다. 사진 촬영 후 이어진 짤막한 인터뷰에도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싶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비록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뤄진 짧은 이벤트였지만 동료들과 사진을 찍고 현장에서 바로 인화해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며 넥센 타이거 직원들은 앞으로 이런 이벤트를 자주 열었으면 좋겠다는 소망 같은 소감도 전했다.

2022년은 호랑이해다. 호랑이 기운으로 상상하고 꿈꿔왔던 일들을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길 <헬로우 넥센>이 응원한다.

재료연구팀

배낭여행도 가고, 자격증도 따고,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루길 바랍니다.



Hello NEXEN

Michael Haupt 본부장,
OE개발2팀 김홍철 사원





윤리경영팀

다들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랍니다.

Hello 2022



오세인 BG장, 이현종 사장, 안희세 BG장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권근희 선임, 강지은 사원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대화도 많이 하고,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풍선,
물 위를 달리는
버스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곳,

부여

어릴 적, 풍선 4개를 두 손에 나눠 쥐고 마당 장독대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다. 하늘을 날진 못해도, 그래도 공중에 잠깐 떠 있으리라는 확실한 믿음은 있었다. 전날 밤, 토요일화에서 본 영화 <80일간의 세계일주> 때문이었다. 영화 속 주인공은 풍선을 타고 하늘을 두둥실 날아다녔으니까.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거대한 풍선이 내 앞에 있다. 어린 내가 손에 쥐었던 풍선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풍선이. 아, 그날, 그러니까 풍선 4개 쥐고 장독대에서 뛰어내린 그날, 나는 생전 처음 목발이라는 걸 짚고 걸어봤다.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







풍선을 타고 부여의 하늘을 날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오전 7시. 백마강변으로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든다. 모두 19명. 열기구투어를 위해 새벽잠 설쳐 가며 부여를 찾은 이들이다. 시린 손 호호 불어가며 이제나 저제나 열기구 탑승시간만을 기다리는 이들의 얼굴엔 비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다. 질게 낀 안개는 다행히 햇

살에 떠밀려 서서히 물러났다. 안개는 바람만큼 열기구 비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초초하게 하늘을 살피던 이들의 얼굴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번진다.

부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열기구 자유비행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헬륨가스를 채운 기구에 몸을 싣고 계류비행을 하는 곳은 더러 있지만, 데운 공기로 띄운 기구에 올라 유형하듯 하늘을 나는 경험은 오직 부여에서만 가능하다. 높은 산과 고층빌딩이 없는 부여는 열기구 자유비행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송풍기를 돌려 '구피라 부르는 거대한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한 건 그즈음. 열기구는 구피에 불어넣은 바람을 버너로 데워 하늘을 나는 비행체다. 1782년, 프랑스의 몽골피에 형제가 타다만 종이조각이 연기에 떠다니는 모습을 보고 열기구를 발명했다고 하니, 그 역사가 무려 240여 년에 이른다. 이듬해 몽골피에 형제는 사람을 태운 열기구로 460미터 상공에서 25분 동안 10킬로미터를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 하늘을 날고자 했던 인류의 꿈은 그렇게 실현됐다.

'동실' 아무 저항 없이 몸이 공중으로 떠오른다. 아주 천천히. 이 느낌, 참 낯설다. 중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이리 수월했던가 싶다. 하늘을 날기 위해선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테면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를 굽어대는 타이어의 굉음을 참아내고, 급격한 고도 변화로 귀가 먹먹해지는 불쾌함도 그러려니 감당해야 한다. 한데 지금은 그런 불편이 전혀 없다. 아니 되레 편안하다. 바람에 실린 깃털처럼, 그러니까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몸이 하늘로 동실 떠오른다. 속속, 버너에서 불꽃이 피어오를 때마다, 딱 그만큼씩 하늘과 가까워진다. 구름처럼 백마강을 뒤덮은 안개가 그새 발아래 그림처럼 펼쳐진다.

부여 열기구투어는 하루에 딱 한 번, 해 뜨기 직전에만 체험이 가능하다. 열기구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열이 가장 낮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조향 장치가 없는 열기구는 온전히 바람에만 의지해 하늘을 난다. 필요한 바람을 타기 위해 위아래로 열기구를 움직이는 게 파일럿의 역할. 열기구가 하늘을 나는 동안 지상요원들은 차량으로 열기구를 좇으며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파일럿과 계속 공유한다. 열기구의 이착륙 지점이 수시로 변경되는 건 그래서다. 부여 열기구투어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150m 높이에서 백마강을 따라 6km 정도 자유비행을 한다. 비행시간은 40분 내외. 부여 열기구투어는 스카이버너 홈페이지(www.balloontour.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여 열기구 체험 정보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금강 둔치 일원
- ① 1일 1회 일출 전, 40분 내외
- ☎ 성인 정가 275,000원, 어린이(37개월~초등학생) 180,000원
- ☎ 스카이버너 041-837-8809

**물위를 달리는
신동방통한
수륙양용버스**

퐁당! 거대한 버스가 물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든다.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입수에 성공한 버스는 곧바로 배로 변신을 시도한다. 영화 트랜스포머처럼 내심 멋진 변신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물에서 추진력을 얻기 위해 프로펠러를 작동시키는 게 변신의 전부. 그래도 좌우로 뒤통대던 버스가 중심을 잡고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다. 누가 뭐라 해도 버스를 타고 강을 건너는 일은 분명 특별한 경험이니까. 부여의 수륙양용버스타우는 이렇듯 스펙터클 하게 시작한다.

부여의 하늘을 열기구가 책임진다면, 부여의 젓줄 백마강엔 수륙양용버스가 있다. 수륙양용버스는 이름처럼 물과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는 버스다. 물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물로 수시로 오가는 버스이다 보니 일반 버스와는 그 생김도 조금 다른데, 둥글둥글 모나지 않은 차체에 지상고까지 높아 버스인 듯 버스 아닌 버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얼핏 상륙작전에 투입되는 해병대의 수륙양용전차가 연상되기도 한다. 물론 수륙양용버스는 무한궤도가 아닌 네 바퀴로 굴러간다.

백제문화단지를 출발한 수륙양용버스는 백마강레저파크에서 입수해 고란사, 낙화암, 천정대를 수상에서 돌아본 뒤 다시 백제문화단지로 돌아온다. 시간은 40분 정도. 구드레나루에서 고란사를 오가는 황포돛배와 코스가 겹치지 않아 백마강의 새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다. 수륙양용버스타워 탑승



**부여
수륙양용버스
체험 정보**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백제문화단지
🕒 09:30~17:30, 40분 내외,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 성인 24,000~30,000원, 청소년 21,000~27,000원,
어린이 18,000~24,000원
☎ 부여시티투어041-408-8777

권은 부여시티투어 홈페이지(www.buyeocitytour.com)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여유분에 한해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수륙양용버스가 출발하는 백제문화단지에서 차로 30분쯤 달리면 성흥산성이라 불리는 가림성(사적)에 닿는다.

백제시대 축조된 이 산성은 하늘과 강을 부지런히 누빈 부여여행을 마무리하기에 말 그대로 맞춤형 곳이다. 이유는? 멋진 일몰을 볼 수 있기 때문.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다. 부여의 대표 포토 존인 사랑나무가 바로 이곳에 있다. 주인공은 산성 남문 입구에 우뚝 선, 수령 400년의 느티나무. 최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느티나무는 축 처진 가지가 마치 하트 모양을 반으로 잘라놓은 듯해 이를 반전·합성한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특히 일몰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랑나무 사진은 전국구 인생 샷 명소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다. 주말이면 사진 찍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긴 줄이 만들어질 정도. 성흥산성 사랑나무는 드라마 <세종대왕>과 <호텔 델루나> 등 많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2022년은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상상, 행복한 상상으로 맞이하는 건 어떨까?
넥센인들의 아이디어,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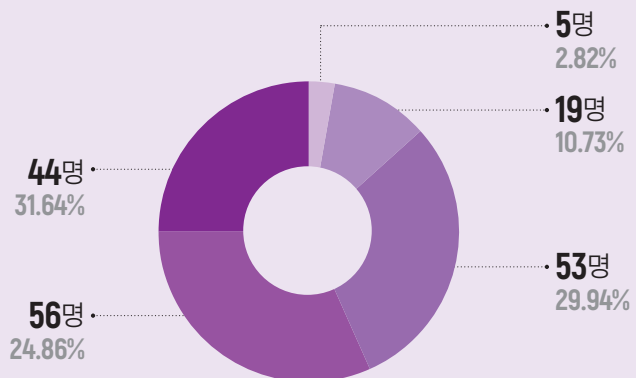
설문기간: 2021.12.09~12.10, 참여자: 178명(중복 응답 가능)

넥센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Q 당신의 상상력 지수는 5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나요?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Q 요즘 시대에 상상력 넘치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하다

99명
51.30%

업무, 일상, 예술활동 등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58명 30.05%

조직이나 모임에서 창의적인 인물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18명 9.33%

아이디어에 대한 강박이 오히려 문제다

17명 8.81%

기타 ———— •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다 - 오한준
•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라를 살리는 시대 - 이광식

1명 0.52%



Q 나만의 상상력으로 가득한 아이디어가 팡팡 터지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나만의 프라이빗 공간(이불 속, 화장실 등)

49명 22.90%

어딘가로 이동하는 차나 대중교통

47명 21.96%

처음 가보는 낯선 장소

38명 17.76%

기타 ————— • 아침 출근 전 공원을 산책하며 사색할 때 - 최규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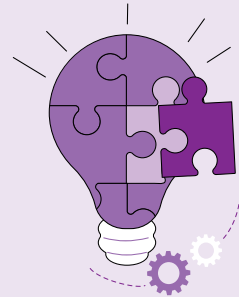
11명 5.14% •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와 함께할 때 - 탁세원

• 침대에서 잠들기 전 - 박우상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는 업무공간

10명 4.67%

대화가 살아 숨쉬는
만남의 공간 **59명**
27.57%



Q 조직에서 자유로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나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호기심과
열린 질문하기

103명
37.05%

비판하지 않기

70명 25.18%

선불리 판단하지 않기

43명 15.47%

잠재력을 믿고 기다리기

30명 10.79%

많은 자료 제공하기

27명 9.71%

기타

5명 1.80%

• 자기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기 - 김백환

• 허물없는 대인 관계 - 이종철



Q 당신의 상상력을 짓누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매일 변함없는 일상

71명 32.87%

새로운 시도에 대한 귀찮음

47명 21.76%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한다는 불안감

42명 19.44%

복잡한 대인관계

36명 16.67%

기타

20명 9.26%

• 주변의 물이해 - 박한준

•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 조현우

Q 기발한 상상력이 주어진다면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 텔레포트로 지구 곳곳을 10분 내로 다니는 장치 개발 - 하동균

•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부강하게 발전시키기 - 정재환

• 자가용 우주선으로 우주 여행하기 - 정우영

• 미래 지향적인 컨셉 타이어 만들기 - 오준환

• 동물과 의사소통 가능한 장치 개발 - 조성윤

• 사계절 입고 다닐 수 있는 옷 만들기 - 임근록

• 제2의 BTS를 만들어 세계인의 마음 사로잡기 - 이승은

• 과거나 미래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사 운영하기 - 유경열

• 스마트폰 다음 세대의 전자기기 발명 - 김형모

• 공기 없이 움직이는 타이어, 펑크 나지 않는 타이어 만들기 - 유민

•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드라마 각본 쓰기 - 박정현

•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 - 박평화

•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소설가 되기 - 문진석

• 다양한 콘텐츠로 세상에서 가장 핫한 유튜브 채널 운영 - 주호진

빙글빙글, 내 안의 상상과 마주하다

상상력이란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일 또는 물건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힘을 말한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상상으로 비행기가 탄생했고 멀리 떨어진 사람과 이야기하는 상상으로 전화기가 탄생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상상,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나만의 공간 만들기

책상에 오래 앉아있었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는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치며 뛰쳐나왔고 갈릴레오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상들리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진자의 운동을 발견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려면 편안한 상태에서 어깨의 힘을 빼고 머리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마상, 침상, 편상(변소)을 생각하기 좋은 장소라 말했다. 즉 자동차나 지하철, 자전거 등 무언가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고 있거나 걸을 때,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바로 화장실이다. 많은 넥센인이 선택한 것처럼 카페 등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좋은 장소다. 평소 가보지 않은 곳으로 짧게 나들이를 다녀오는 것도 방법이다. 여유가 된다면 교외 공원이나 바닷가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안 가본 길이 있으면 발걸음을 옮겨보자.

내 안에서 아이디어의 씨앗 찾기

매일 변함없는 일상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귀찮음,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야 한다는 불안함은 우리의 상상력을 짓누른다. 그러다 보니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내 안의 엄격한 관리자가 먼저 나서서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하고 폐기해 버린다. 좋은 아이디어인지 나쁜 아이디어인지는 나중에 거르고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자기검열 하지 말고 자유롭게 적어보자.

수첩, 다이어리, 노트 혹은 A4용지 이면지도 상관없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탈탈 털어 떠오르는 단어들을 닥치는 대로 써 내려가 본다.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던 단어가 가장 먼저 떨어 나올 것이다.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속 갤러리와 SNS 피드, 메모장, 다이어리 등을 훑어본다. 앞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장소나 공간에서 평소 메모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건 상관없다.

다음은 그중 쓸 만한 아이디어를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마인드맵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키워드를 가운데 놓고 마구잡이로 떠올렸던 단어들을 사방을 배치한다. 그리고 각각의 단어에서 다시 한 번 가지를 뻗어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 넣는다. 이때 유난히 가지가 많은 단어가 눈에 띌 것이다. 그 단어가 바로 내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다. 이제 이 가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다른 사람도 관심 있을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골라 낸다. 이 과정에서 떠올린 아이디어가 전부 탈락해도 괜찮다. 다른 단어들을 조합해서 아예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내 안의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다.



자유로운 대화가 오가는 조직 분위기 만들기

베스트셀러 《룬샷》의 저자이자 바이오테크기업 신타제약의 창업자인 사피 바칼 박사는 그의 책에서 “리더는 세심한 손길로 구성원의 괴짜 아이디어를 육성하는 ‘정원사’가 돼야 한다”라고 말한다.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파격적인 아이디어(룬샷)가 내부 장벽에 부딪혀 사장되지 않으려면 리더가 직접 나서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의 일원이 리더의 지시에 반대하거나 관행대로 이어져 온 방식에 의문 제기하거나 또는 다소 엉뚱해 보이는 질문을 하지 못하는 데는 혹시라도 비난이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면 회의 때 진짜 토론이 사라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똑똑한 다수가 모여 명명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그룹 싱크(Group Think)’를 피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입 밖으로 내고 해프닝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연장자일수록 내가 상대보다 나이가 많고, 직급도 높고, 경험도 높고, 더 성공했지만 나 역시 틀릴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얘기를 듣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

한 바퀴 달리기

ISSUE

TIRE TECH

상쾌한 새벽 바람을 가르며 크게 숨을 마셔봅니다. 폐를 가득 채운 큰 숨을 조금씩 내뿔으며 오늘의 할 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내일의 할 일, 그리고 한 달 후, 1년 후의 일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몰입하다 보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당신의 미래가 조금 더 명확히 보일 것입니다.



더넥센유니버시티에 내려앉은 햇살과 노래, 그리고 행복

가을 햇살 완연한 지난 10월 28일, 더넥센유니버시티의 중정에서 감성을 자극하는 선율과 노랫말이 울려 퍼졌다.
넥센타이어 임직원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펼치는 무대를 감상하며 따스한 행복을 쫓아왔다.





가을의 한복관에서 만난 특별한 무대

언제 만나도 기분 좋은 더넥센유니버시티의 중정에 아침 일찍부터 활기찬 분위기가 감지됐다. 중정 한쪽에 설치돼 있는 야외무대를 중심으로 대형 화면과 갖가지 음향 장비, 카메라와 영상 설비들이 질서정연하게 차곡차곡 배치됐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벡센타이어 임직원들의 입가에 미소가 살포시 앉았다. 더넥센유니버시티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삼은 음악 프로그램 <ALIVE>의 녹화일이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10월 28일의 중정에는 가을 느낌을 물씬 머금은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녹화 준비에 분주하던 스태프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 앉자, 벡센타이어 임직원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중정을 둘러싼 산책로를 따라 늘어선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 무대로 집중됐다. 프로그램 PD가 촬영에 협조해 준 더넥센유니버시티와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곧 무대가 시작됨을 알렸다.

곧이어 마이크와 대본을 든 사람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왔다. 이날 진행을 맡은 배우 김정은이었다. 임직원들에게 반가움을 전한 그가 특유의 발랄함을 뽐내며 임직원들을 웃게 만들었다.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많은 호응을 부탁한 그가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가을에 어울리는 베이지색 의상으로 맞춰 입은 네 사람이 무대를 채웠다. 가창력 뛰어나기로 유명한 빅마마였다. 이날의 공연은 이렇게 막을 올렸다.





매일 오가는 우리의 일터에서 가수들의 훌륭한 공연과 마주할 수 있었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공간에서 일하고 있음을 널리 알릴 수 있었기에, <ALIVE>의 추억은 임직원들 사이에서 흥겹고도 행복한 이야깃거리로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이곳이었기에 더욱 빛났던 공연

네 사람의 환상적인 하모니가 임직원들의 고막과 마음을 울리자,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모두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분위기만큼은 2년 전 마스크 없이 마음껏 즐기던 어느 대형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했다. 빅마마가 사방의 임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손을 흔들었다. 김정은과 빅마마의 근황 이야기와 해맑은 수다가 노래와 노래 사이를 부족함 없이 메웠다.

빅마마의 뒤를 이어 무대에 선 가수들도 임직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멜로망스의 티 없이 고운 목소리와 스위트소로우의 감미로운 아카펠라, 울랄라세션의 빈틈없는 합과 마마무 휘인의 무대장악력, 이승철의 명불허전 음색이 무대를 지켜보는 임직원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김정은이 끝까지 공연과 함께해 준 사람들에게 연신 고마움을 전했다. 임직원들의 뇌리에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이 새겨진 순간이었다.

이날의 공연은 색다른 아름다움으로 점철된 덕백센유니버시티에서 펼쳐졌기에 더욱 빛났다. 이를 증명하듯 공연 내내 드론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이곳의 전경을 정신없이 촬영했다. 매일 오가는 우리의 일터에서 가수들의 훌륭한 공연과 마주할 수 있었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공간에서 일하고 있음을 널리 알릴 수 있었기에, <ALIVE>의 추억은 임직원들 사이에서 흥겹고도 행복한 이야기거리로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커피 향 가득한 선후배의 첫 만남

지난 12월 16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넥센타이어 신입사원 교육 현장에 진한 커피 향이 감돌았다.
커피 향의 출처는 핸드드립 커피 만들기 프로그램. 덕분에 처음 만난 넥센타이어 선후배들은
자연스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





커피, 좋아하세요?

나흘째 이어져온 신입사원 교육 현장에 때아닌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갖가지 핸드드립 도구를 실은 카트가 연수장으로 들어오고 정면의 큰 화면에는 <핸드드립 커피와 커피 테이스팅>이라는 자료 화면이 떠올랐다. 덩달아 신입사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고 연수장의 공기도 순식간에 바뀌었다. 선배와의 대화를 앞두고 액티비티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핸드드립 커피 만들기 현장은 그렇게 기분 좋은 설렘으로 가득 채워졌다.

선배와의 만남을 위해 재정비된 6개의 테이블 위에 드립퍼, 드립포트, 저울 등이 세팅되자, 첫 만남의 어색함은 금세 희석되고 삼삼오오 자연스레 대화가 시작됐다. “커피, 좋아하세요?” “오, 저울이 신기하네요.” 조심스레 도구를 들여다보는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집에서 종종 핸드드립을 내려서 마신다는 경력자가 있는 테이블은 왠지 모를 여유와 자신감마저 느껴졌다.

10분간의 짧은 세팅이 끝나고 교육을 맡은 최정현 강사가 마이크를 들어 올리자 마침내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교육은 커피 핸드드립, 커피 테이스팅, 나만의 핸드드립 만들기 순서로 진행됐다. 강사의 지시에 맞춰 벡센타이어 직원들은 뜨거운 물을 받아온 뒤 자리에 앉아 첫 번째 원두를 기다렸다. 이날 이들이 맛볼 원두는 총 3종으로, 에티오피아 구지 모모라가 첫 번째 주인공이었다.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다

핸드드립은 정교함을 요한다. 레시피 대로 정량과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이후에도 같은 맛과 향의 커피를 구현하고, 또 이를 비교해가며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벡센타이어 직원들은 비록 완벽하게 레시피를 맞출 순 없었지만 최대한 신경을 집중하고 서로를 도와가며 첫 번째 핸드드립을 끝냈다. 그리고 서로가 내린 커피를 음미하며 취향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 본 커피 만들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영업팀 최근철 신입사원은 “현업의 선배님들과 함께 커피를 만들면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며 소감을 전했고 경영관리팀의 김경하 책임은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들을 이런 편한 자리를 통해 미리 만나게 되어서 좋았다.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며 성격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이날의 프로그램은 각자의 취향에 맞춰 새로 추출한 커피를 들고 장소를 옮겨 선후배 간의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누구나 저마다의 향기와 색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성들을 서로 인정하고 잘 융합될 때 더 큰 시너지가 발생한다. 이날의 기억을 바탕으로 함께 어울리며 깊고 진한 시너지의 향기를 발산하길 기대한다.

일본 모터스포츠 'Toyota 86/BRZ Race' 대회 첫 포디움 입상





넥센타이어가 일본에서 열린 'Toyota 86/BRZ Race' 대회에 참가해 포디움에 입상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지난 10월 31일, 일본 토카치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Tokachi International Speedway)에서 열린 'Toyota 86/BRZ Race' 대회의 프로페셔널 시리즈 7라운드에서 '넥센 레이싱팀' 소속의 오카모토 다이치(Okamoto Daichi) 신수가 'N'FERA SPORT R' 제품이 장착된 Toyota 86 차량으로 3위를 기록했다.

넥센타이어의 기술력이 집약된 'N'FERA SPORT R' 제품은 레이싱에 특화된 세미슬릭 타이어로 고속주행 시 뛰어난 접지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2013년부터 일본에서 시작된 'Toyota 86/BRZ Race' 대회는 글로벌 스포츠카인 Toyota 86, Subaru BRZ 차량으로만 진행되는 대회로 토요타 산하의 TRD(Toyota Racing Development)가 주최한다. 그중 프로페셔널 시리즈는 국제자동차연맹(FIA) 및 일본자동차연맹(JAF) 공인의 프로 드라이버들이 출전하는 시리즈로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수 있다.

넥센타이어는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독일, 미국 등 다양한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에 지속적으로 후원 및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8월 국내 '엔페라 레이싱팀'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레이싱 전용 타이어 연구개발 및 성능 육성에 힘쓰며 모터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젊음의 에너지로 미래를 개척하다

타이어테크
해운대신도시점



지난 7월 오픈 이후 매출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는 타이어테크 해운대신도시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젊음의 패기' 덕분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를 개척하는 타이어테크 해운대신도시점을 찾았다.



넥센타이어는 우리의 운명

해운대 신도시는 부산 최초의 계획도시다. 앞쪽으로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으며, 뒤로는 장산을 두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과 상가 지역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이곳 중심에 타이어테크 해운대신도시점이 자리하고 있다.

해운대신도시점은 지난 7월 23일 오픈했다. 오픈 5개월 차답게 깔끔한 외관을 유지하는 이곳은 최기홍 대표를 비롯해 권병국 점장, 김영현 이사, 박기태 과장이 함께 꾸려가고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30대 초반. 젊음의 패기로 가득한 곳이다. 물론 패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넥센타이어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와 판매 및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내 타 대형 업체 대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해운대신도시점을 비롯해 현재 부산에서 총 7개의 넥센타이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처음엔 중고 타이어로 시작해 매장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일반 양판점을 인수한 후 한동안 어떤 브랜드를 취급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결국 넥센타이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운대신도시점의 공동대표인 최기홍 대표와 김준용 대표는 넥센타이어라면 도가 튼 베테랑이다. 대표 타이틀을 달기 전까지 대형 타이어 유통업체에서 무려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브랜드가 넥센타이어였다.

“양판점을 운영할 당시 다른 브랜드의 타이어도 취급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넥센타이어 제품만큼 속속들이 알지 못하니 손님한테 자신 있게 추천할 수도 없고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는 넥센타이어를 선택하자고 마음먹고 2년 전에 대리점 체결을 했습니다.”





해운대신도시점의 베테랑 노트

① 믿고 살 수 있는 가격 정책

해운대신도시점은 유통마진을 최소화해 고객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타이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믿고 살 수 있는 대리점이라는 신뢰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② 타이어 전문가들의 친절한 서비스

대형 타이어 유통업체에서 10년 넘게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이어 광택/휠 세척, 차량내부 연무소독, 엔진룸 청소, 앞유리 청소 등은 기본이다.

③ 척하면 척, 직원들 간의 꿀 케미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사이만큼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척척 통하는 사이다. 우직한 최기홍 대표를 중심으로 꾸준히 소통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직함으로 쌓은 고객과의 신뢰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했던 때라 부담이었을 법한데 젊은 대표들은 위기를 곧 기회라 여기고 더욱 공격적으로 임했다. 가장 먼저 타이어의 가격을 다른 판매점보다 합리적으로 책정했다.

“타이어 판매점이나 정비소에 여성분들께서 쉽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혹여나 바가지를 쓰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 고객이나 나이 지긋하신 고객들이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윤이 덜 남더라도 거짓 없이 최저가에 제공했습니다.”

가격에서 거품을 걷어낸 정직함으로 한 번 고객의 신뢰를 한 번 얻고 나니 연쇄작용으로 다른 고객들이 방문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여기에 해운대신도시점 직원들의 타이어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과 AS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넥센타이어 브랜드 이미지도 제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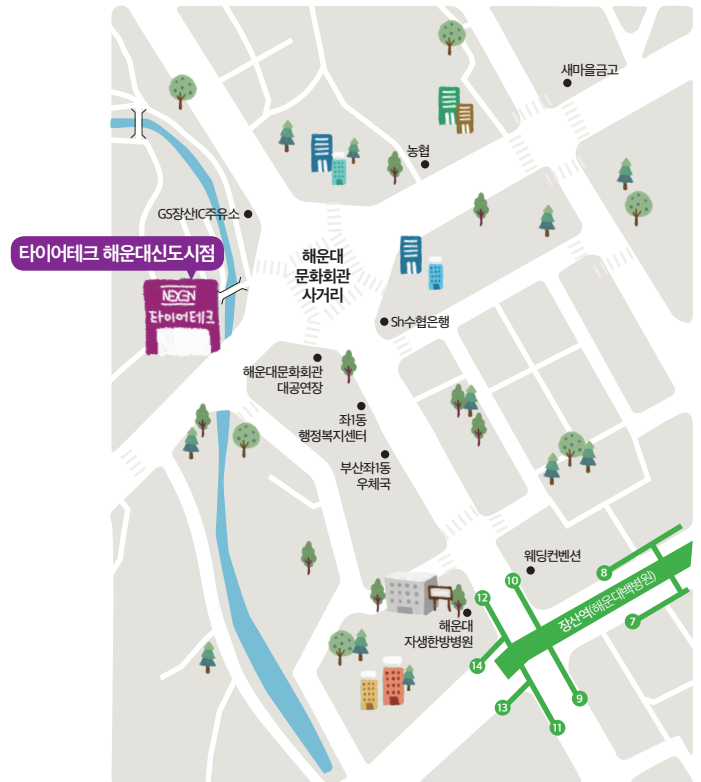
최기홍 대표는 해운대신도시점을 오픈하며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를 정했다. 5년 이내에 부산에서 세 손가락 안에, 10년 이내에 경남권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에는 법인명처럼 ‘1등 타이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직 2년 밖에 안된 신설법인이지만 전체 직원 20명 중 70%가 타이어 판매 및 서비스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넥센타이어에서도 든든하게 지원해 주고 있으니 제 꿈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꿈을 향해 직원들과 함께 손발을 맞추고 역량을 키워 나가며 최고의 타이어 전문점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저희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고 응원해주세요.”

타이어테크 해운대신도시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53번길 36

☎ 051-731-0982



한 바퀴 어울리기

Color of NEXEN

넥센 알고리즘

NEXEN CSR

필환경 로드

저마다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혼자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옆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발맞춰 달려주는 동료의 존재가 있다면 한층 더 신나게, 멀리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 어울려 함께 달리다 보면 세상은 더욱 다채로운 꿈으로, 다양한 웃음소리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Color of NEXEN

양산공장

나만의 색으로 넥센을 물들이는 시간! 2022년을 여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넥센타이어 양산공장이다.
넥센인 가족만의 개성을 담아 함께 한 땀 한 땀 색을 입힌 완성본을 공개한다.



김동철 조장

제품관리계

추운 겨울이지만 여름철
싱그러운 푸른 산과 강을
상상하며 색칠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손으로 쓱쓱
칠하다 보니 은근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게 컬러링의
묘미인가 봅니다.
다음 시리즈에는 어떤 풍경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그때까지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해 보려고요.

최병은 책임

문화혁신팀

아들과 함께 그린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중심지,
넥센타이어 양산공장'입니다.
수소차 충전소를 그려
넣은 디테일을 보며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깨끗한 강과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김진식 책임

유통개발TFT

아이들에게 벅센타이어 양산공장의 모습을 설명해 주며 공장 전경과 주변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 색을 입히는 순간 우리 가족은 모두 진지했고, 그 모습을 서로 바라보며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이런 것일까요?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은 제가 내일 다시 벅센맨으로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큰 원동력입니다. 우리 가족과 벅센 가족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김주엽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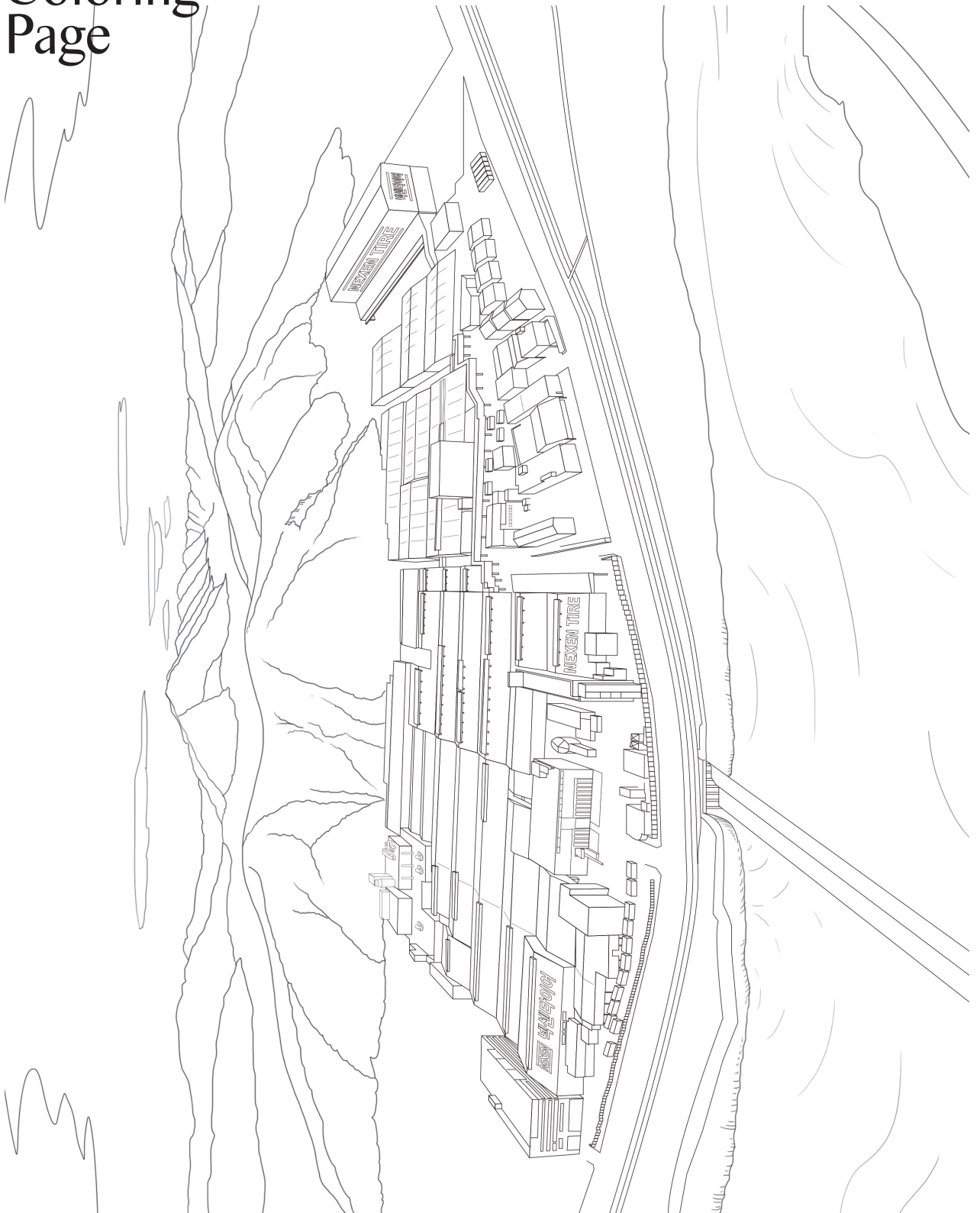
인사팀

지난 주말 초등학교 1학년 딸 라희와 함께 집콕하면서 양산공장 색칠놀이를 했습니다. 라희가 전체적인 색감을 구상했는데, 제 눈에는 어느 아티스트 작품 못지않네요. :) 요즘 미술을 배우고 있어서 그런지 그라데이션 같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색칠했는데, 다들 알아보시겠죠?



Self- Coloring Page

독자 여러분도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넥센타이어 양산공장 전경을 색칠해 보세요.



What's in my Phone



넥센인이 추천하는 최애 앱 7선

넥센인의 휴대전화 속이 궁금하다! 창의적이고 개성 넘치는 넥센인의 휴대전화는 어떤 앱들로 채워져 있을까? 그동안 나만 써서 미안했다며, 7인의 넥센인들이 추천한 최애 앱을 오픈한다.



금융·재테크



내 곁에 국민연금

노후를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이영세 선임
글로벌 유통전략PJT

넥센인이라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텐데요. 수령하는 시기가 아직 멀었다 생각해 평소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를 위한 재테크를 계획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강력 추천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면 내 연금의 현재 가치/미래가치 기준 수령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노후자금 간편진단을 통해 은퇴 후 30년간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를 예상하고 이에 맞춰 금액이 얼마나 부족한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와 노후 준비의 첫걸음으로써 내 국민연금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동기 부여로 삼으시길 바라며 이 앱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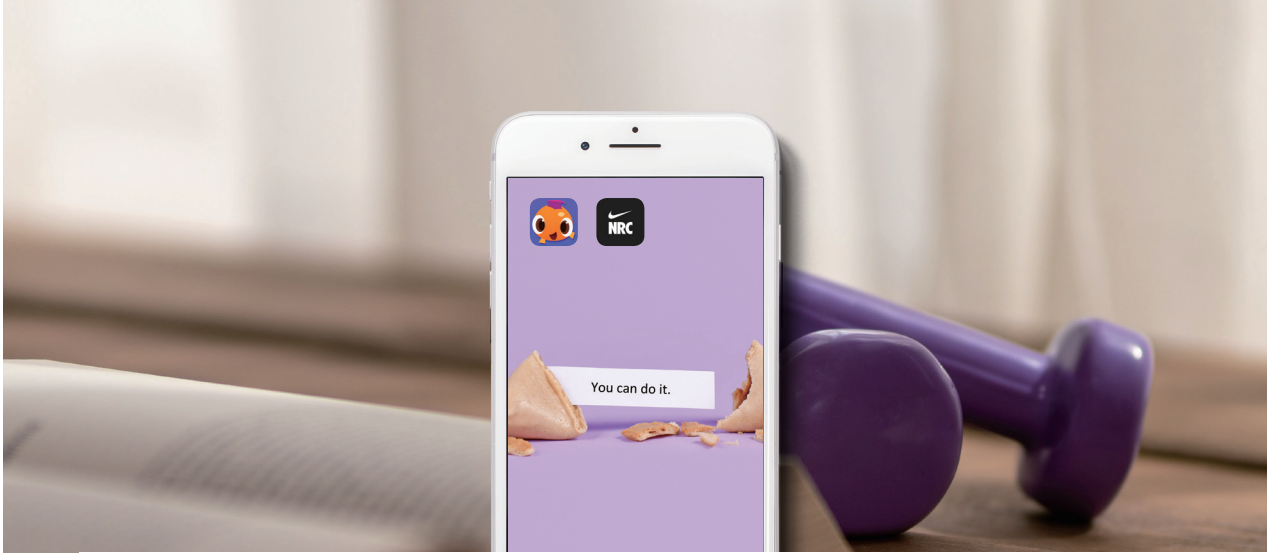
오피넷

저렴한 주유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지수 선임연구원
컴파운드개발팀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유류비의 고공행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해 모두들 눈에 불을 켜고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유용한 앱을 소개합니다.

‘오피넷’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유가정보 서비스로, 전국 약 1만 3천여 개의 주유소 및 충전소의 실시간 판매가격을 웹과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 주유소 및 동네, 전국 유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 정보까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작하여 유류 가격 등의 데이터 신뢰도가 가장 높으며 개인적으로 반영되는 속도도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주 사용 연료와 선호하는 유류 공급회사를 설정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사용하면 유류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요소수가 적용되는 차량 운전자는 지금 필수로 깔아야 하는 앱입니다.



자기관리·자기계발



말해보카

AI로 영어를 더 재미있게

김동현 사원
글로벌법인영업팀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지만 학원 다니기는 부담이고 혼자 공부하기에는 열정이 부족했던 저를 만족시킨 영어회화 학습 앱입니다.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7일간 무료 체험하면서 상당히 깔끔하고 재미있게 느껴져 정기 결제하고 지금까지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7천 원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앱의 가장 큰 장점은 AI가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해 적절한 수준의 난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레벨 테스트를 치르고 나면 제 수준에 맞춰 하루에 20개의 문장과 단어를 배우는데, 테스트에서 틀린 문장은 지속적으로 출시되어 반복 숙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진도율, 자주 틀리는 단어, 수료에 따른 랭크시스템으로 동기부여도 잘되는 편입니다.

미드나 애니메이션 영어공부 기능도 있어 잠들기 전 유튜브 대신 20~30분 정도 보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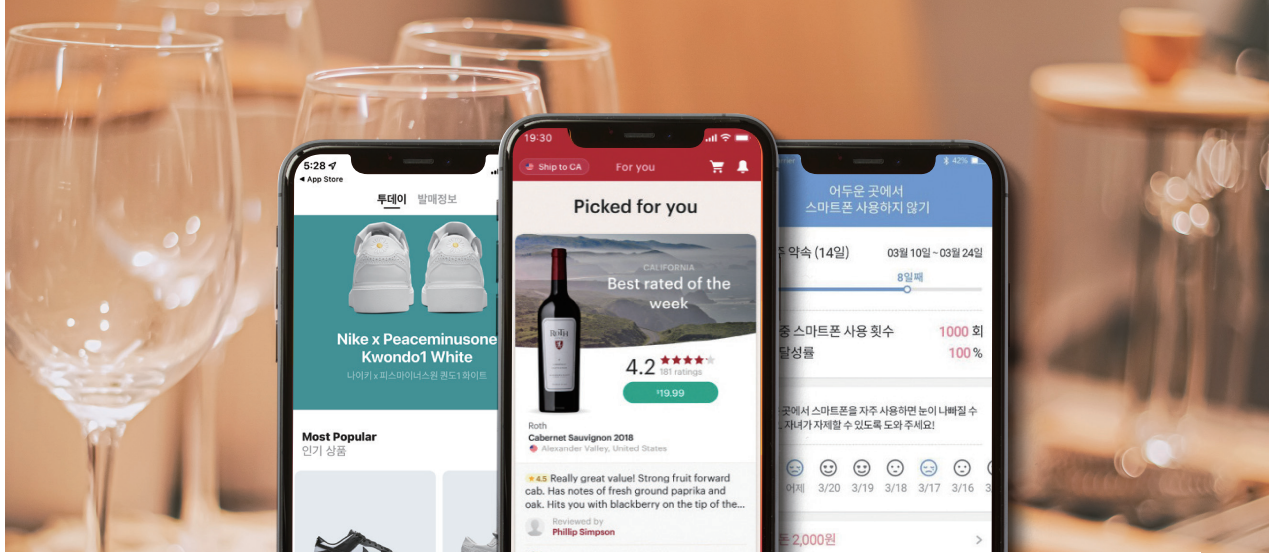
나이키 런 클럽

나를 꾸준히 뛰게 하는 힘

박두진 선임
글로벌 OE 품질팀

러닝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러닝 코칭 앱입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고 있는지, 얼마나 뛰었는지 또 러닝이 끝나면 그날의 코스와 평균 페이스, 칼로리 소모량 등을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체력이 향상되는 걸 느끼고 러닝의 재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러닝 기록 및 데이터를 사진과 합성해 SNS에 공유하는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데, 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날 열심히 땀 스스로를 응원하고 칭찬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자존감 울리기에 그만입니다. 새해를 맞아 운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꼭 이 앱을 이용해 보세요. 러닝을 시작하는 사람을 위해 입문용 오디오 가이드도 제공합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코치들의 테마별 음성 가이드를 통해 러닝에 필요한 팁과 동기부여를 꾸준히 제공받으며 달릴 수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나 다른 러너들과 실시간으로 기록을 공유하고 테마별 러닝을 달성해 기록 배지를 수집하는 것도 소소한 재미입니다.



취미·육아



크림

당신이 찾던 특별한 신발이
모두 여기에

김형모 선임
인사팀

‘크림’은 한정판 거래 중개 플랫폼입니다. 물건을 되파는 리셀 기능이 특히 잘 되어 있는데, 저 역시 채테크 차원에서 제가 가진 한정판 스니커즈를 판매하기 위해 이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판매를 통해 소소한 수익도 있었고 스니커즈 문화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게 되면서 스니커즈의 매력에 빠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크림의 가장 좋은 점은 판매자와 구매자 중간에서 크림 전문 검수센터가 정품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입니다. 가품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거래 전 상품 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의 최근 거래가와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비노

와알못을 위한 친절한
와인 가이드

김판겸 선임
내부회계관리팀

와인의 매력에 푹 빠진 저에게 꼭 필수인 앱이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와인을 발견하고 ‘비비노’ 앱을 클릭하는 순간이 아마도 가장 설레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인의 정면 라벨을 찍으면 해당 와인에 대한 평가(평점), 당도, 대략적인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평점 3.5 이상은 믿고 마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리뷰도 남길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남긴 리뷰를 참고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와인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 와인에 입문한 와인 이(와인+어린이)와 와인 취미를 가진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모바일펜스

좋아요 보다
싫어요가 더 많은 앱

전연희 수석
ERP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넥센인들을 위해 ‘모바일펜스’ 앱을 추천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원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이나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부모의 도움이나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을 조회할 수 있고 앱 및 사이트 차단, 게임시간 제한, 위치추적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만큼 보다 많은 활동으로 자녀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NEXEN CSR 1

‘나를 지켜주세요’ 북 커버 만들기



넥센타이어는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사회공헌활동 '나를 지켜주세요_북 커버 만들기'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전사 임직원 중 총 60명이 참여했으며, 개인별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원하는 배송지로 키트를 배송받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나를 지켜주세요'라는 콘텐츠는 책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북 커버처럼 위기가정아동의 북 커버가 되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응원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완성된 키트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준비한 도서와 함께 아이들에게 선물로 전달된다. 처음 시행된 활동임에도 신청을 받자마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임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일에 동참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들 전했다.

문화혁신팀 유재훈 책임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여를 통한 후원금은 위기가정아동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용되며, 직원들이 정성스레 만든 키트가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NEXEN CSR 2

따뜻한 온기를 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넥센타이어가 연말을 맞아 작년에 이어 난방 취약 가정을 위한 연탄 나눔을 진행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연탄 후원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넥센타이어는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해 연탄을 후원하고 지난 12월 10일 임직원들이 직접 동작구 취약계층에 연탄을 전달했다.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한 넥센타이어 임직원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연탄 전달에 나섰다. 임직원 대부분은 연탄 나눔 봉사가 처음으로 특히 국내영업팀 강혜진 사원은 “민속촌에서 봤던 연탄을 직접 만지게 되어 신기하면서도 옮기는 게 걱정이다”이라며 첫 연탄 전달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약한 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탓에 임직원들은 거의 쉬지 않고 묵묵히 연탄 배달에 임했다. 길이 좁아 릴레이 방식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일일이 날라야 하는 바람에 체력 소모도 만만치 않았다. RE개발팀의 임은모 책임연구원은 “3년 전 양산공장에 근무하며 연탄 전달 봉사에 참여했는데 그때보다 조금 힘들다, 오늘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전했다. 두꺼운 외투를 벗고 열정적으로 임한 디자인팀 김정훈 선임연구원은 “생각보다 힘들지만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다니 보람 있다”라며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연탄 전달 봉사는 중간에 기지를 발휘해 동선을 줄여 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각 가구에 배달된 연탄 덕분에 어르신들은 올 3월까지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NEXEN CSR 3

저소득층 농산물 전달 및 헌혈 캠페인



백센타이어가 취약 계층에 쌀과 고구마를 기부하며 이웃 사랑 실천에 나섰다. 백센타이어 양산공장은 지난 11월 쌀 5kg 400포대와 고구마 10kg 400박스를 양산시 복지 재단에 기부했다. 이는 양산 지역의 사회복지관 5곳에 배분돼 취약계층 400가구에 전달됐다. 이어 지난 12월에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부족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탰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음식물 쓰레기의 여정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을 시키는 일이 더욱 잦아졌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은 죄책감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쓰레기가 된 음식물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도통 관심이 없다. 그리고 또다시 음식을 먹고 버린다. 음식물 쓰레기는 사람들의 망각과 무감각에서 온다.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음식물 쓰레기의 여정은 매일 새벽 집 앞을 오가는 수거 차량에 실려 한데 모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방법은 RFID 계량 방식, 납부필증 방식, 전용 봉투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RFID 계량 방식은 아파트나 주택가에 설치된 종량기·감량기 등으로 음식물의 무게를 측정해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한 납부필증 방식은 납부필증을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한 뒤 수거 용기에 부착해 배출한다. 마지막으로 전용 봉투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사서 배출하는 방식이다.

수거 용기와 전용 봉투는 음식물 쓰레기 양과 일회용 비닐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비닐은 2차 폐기물로, 비닐 조각이 혼합되면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과정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째로 수거 용기에 넣어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거 차량 1대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음식물 수거 차량은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새벽 6시부터 주택가 골목과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다. 수거 차량이 돌아다닌 지 15분 만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찬다. 참외 껍질, 밥알, 상추 등 각종 음식물이 뒤섞여 있고, 그 중 물기가 약 80%나 차지한다. 여름철에는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고, 겨울철에는 얼어서 용기에 들러붙거나 용기를 깨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수거 직원들은 2~3만 보를 걸으며, 일일이 수거 용기를 비운다. 수거 차량이 꽉 차면 사료화 및 퇴비화 시설에 가서 비워내는데, 보통 3~4번은 오가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가 되기까지



1

수거 차량이 동네를 돌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다.

2

납부필증 스티커를
떼서 모으고,
용량 표시를 넘긴 경우
경고장을 붙인다.

3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이동해 음식물 쓰레기를
호퍼(투입구)에 쏜다.

4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나온 음식물 쓰레기의
선별작업을 진행한다.

5

선별작업이 끝나면,
기계로 넣어 균과 냄새를
없앤다.

6

분쇄,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친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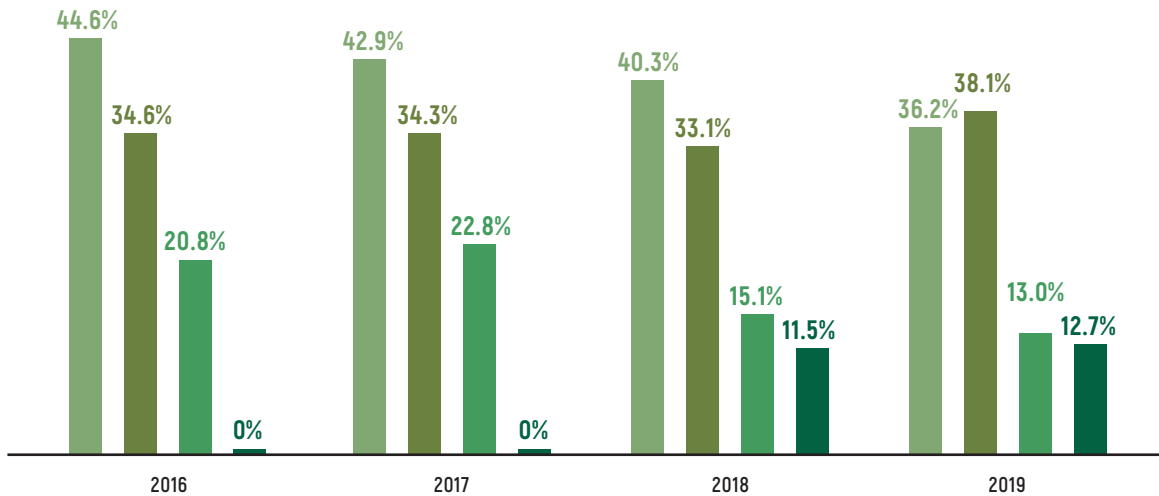
부자재를 혼합해
사료를 만든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식별 점유율

 사료화
  퇴비화
  기타
  바이오가스화

(출처: 환경부)



음식물 쓰레기의 가치 있는 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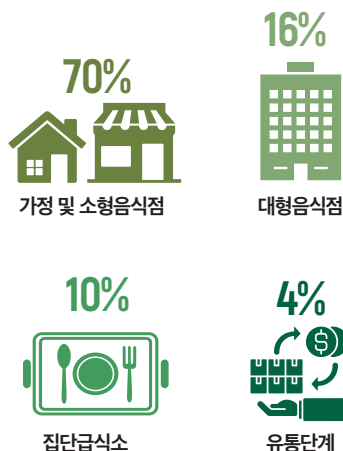
음식물 쓰레기의 총량은 하루 평균 150톤에 달한다. 대부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화 방식으로 재활용되거나 매립·소각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썩혀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양분으로 만드는 방식이 퇴비화고, 동물의 사료로 재생산하는 방식이 사료화다. 퇴비화 발효용기에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톱밥, 미생물 발효제 등을 넣으면 퇴비가 만들어진다. 주로 퇴비화 시설을 통해 생산되나, 가정에서도 음식물처리기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반면 사료화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이뤄지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는 호퍼(투입구), 시설의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탑, 악취나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3단 약액세정탑 등이 갖춰져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호퍼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나오고, 이물질질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선별된 음식물 쓰레기는 기계를 통해 분쇄,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사료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조사료는 다른 배합사료와 섞여 닭, 오리 등의 사료로 쓰인다. 최근에는 양어용 배합사료나 개·고양이 사료를 코팅하는데 쓰이는 애벌레, 곤충 등을 사육하는데도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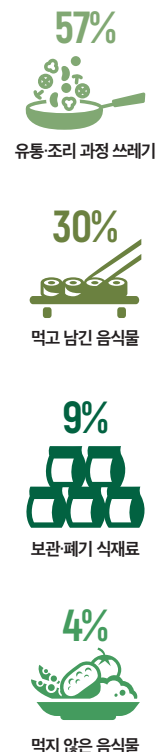
1인당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음식물 쓰레기 발생 장소



음식물 쓰레기 구성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슬기로운 실천법!



음식은 먹을 양만!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음식을 구매하거나 만들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 장보기 전에 냉장고 안의 식재료를 확인해 일주일 치의 식단 계획에 따라 필요한 구매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저렴하다고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버리기 전에 수분 제거!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하면, RFID 계량 방식에 부과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악취도 해결할 수 있다. 음식물 전용 탈수기를 사용해도 좋으나, 제품이 없다면 물기가 잘 빠지는 통에 넣어 장갑을 낀 채 짜서 버린다.



식재료의 올바른 보관!

채소와 과일은 구매한 상태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빠르게 부패가 이뤄진다. 한 끼 분량으로 나누고 물기를 제거하여 보관한다. 물론 보관을 잘 하더라도 3개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분류 방법은 꼼꼼히 확인!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는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된다. 비닐, 은박지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반 쓰레기이지만 음식물 쓰레기로 헛갈리는 달걀 껍질, 고기 뼈다귀, 과일 씨 등을 꼼꼼히 분류한다.

한 바퀴 쉬기

미래참견시점

트렌드가 뭘이요?

마음 처방전

별별 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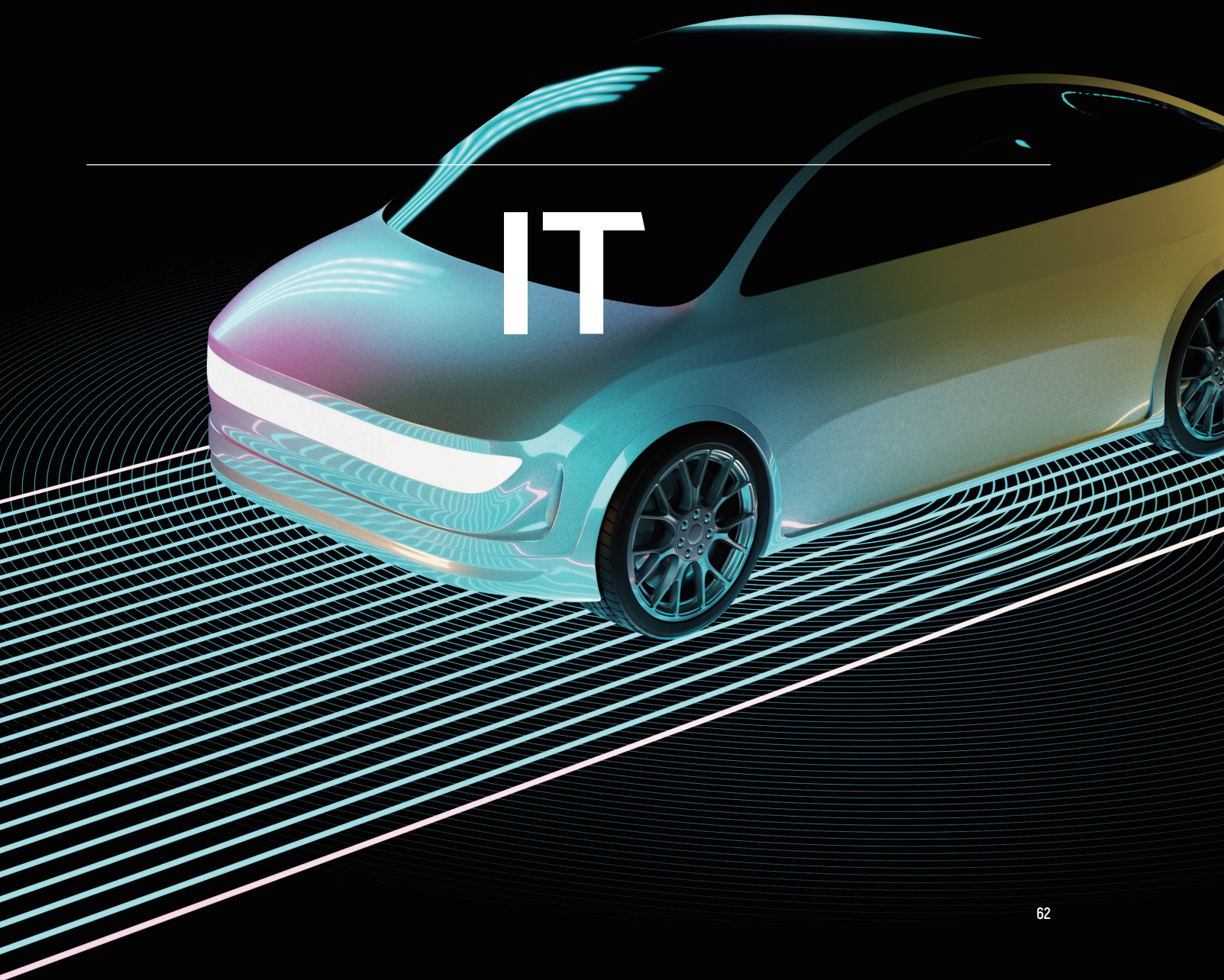
NEWS

쉽 없이 달려온 날에 한 '숨'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잠시 멈춰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다시 달리기 위해 재정립할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신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키워보세요. 그리고 좀 더 나은 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의 씨앗도 함께 심어보세요.



모빌리티 시장은 100년만의 패러다임 변화를 맞고 있다. 1913년 포드의 대량생산이 '자동차의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는 자동차에 기반한 '서비스의 시대'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자율주행-서비스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IT 업체들의 진출도 빨라지는 상황이다. 생활공간으로 진화하는 미래자동차에서 IT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래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IT

자율주행차의
공간은
스마트오피스,
스마트홈과
연계되면서
업무공간,
생활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고,
통신, 디스플레이,
사용자 행동 인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IT
기술과 접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린스피드 메트로스넵

Connectivity

미래 자동차 시장, 주연이 되는 IT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나 커넥티드카에서 주요 역할을 해 왔던 IT 기술이 조연에서 주연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그동안 자동차 시장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해 왔던 IT 기술과 IT 업체들이 시장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의 상용화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에서 해방되는 자율주행차에서 업무, 휴식,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IT 기술의 제공은 필수적이다. 자율주행차의 공간은 스마트오피스, 스마트홈과 연계되면서 업무공간, 생활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고, 통신, 디스플레이, 사용자 행동 인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IT 기술과 접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자율주행-서비스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IT 기술의 진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테슬라, 현대자동차, 폭스바겐 등 주요 관련 업체들은 배터리를 아래에 탑재한 플랫폼 구조로 전기차를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채택하면 실내 공간 설계가 쉬워지고, 다양한 모델을 빠른 시간 내에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 플랫폼 구조는 자율주행과 서비스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전기차는 자율주행 측면에서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차량제어가 쉽고, 차량 설계가 용이하며, 차량 내 사용성이 좋다. 또 공유에 적합하고, 고장 진단이 용이하며, 무선 충전을 통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기자율차에 통신 및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되면서 IT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IT 중심의 자율주행과 과제

벤츠는 IT 중심의 시장 변화, 전기차-자율주행-서비스 중심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 CASE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CASE는 연결성(Connectivity), 자율주행(Automated driving), 공유와 서비스(Sharing & Service), 전기차(Electric Vehicle)의 약자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CASE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벤츠는 여전히 이 시장에서 도전자 입장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였던 벤츠조차, 관련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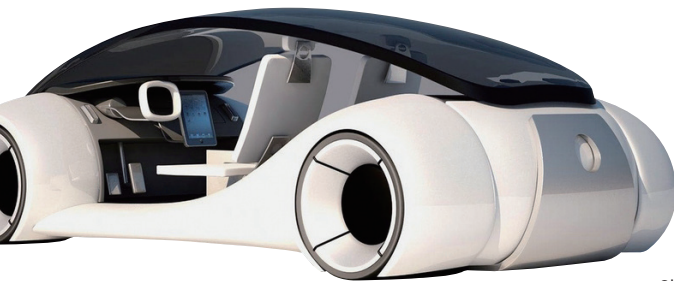
전기차 전용 브랜드 EQ의 첫 차량인 EQC는 시장에서 크게 실패한 바 있다. 자율주행에서도 테슬라, 현대자동차 등에 비해서 상용화에 늦었으며, 테슬라의 빠른 자율주행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벤츠가 오랜기간 노력해 온 차량 공유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벤츠가 자랑하던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코로나 사태에서 방향을 찾지 못했다. 우버, 리프트, 그랩 등 주요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발빠르게 배송 사업을 확장하면서 손해를 만회한 데 비해서, 벤츠의 서비스는 변신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벤츠와 EQ의 사례는 IT 측면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사용자의 선호도와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관련 기능과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구글 웨이모



Automated driving Sharing & Service



애플카
컨셉 이미지



앰버 모빌리티

테슬라, 구글이 주도하는 전세계 자율주행 시장에는 최근 애플이 자율주행차 양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IT 중심의 자율주행 발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화웨이, 바이두, DJI 등 IT 관련 업체들이 자율주행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이후 자동차사들이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진행하고, 구글 웨이모 등 여러 자율주행 업체들이 도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눈, 비가 오지 않는 대낮에 차량이 별로 없는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자율주행에서는 날씨 조건의 극복, 조명 변화에 대한 대응, 도심 모델링 및 도심 주행, 수동 주행 차량과의 공존이 과제가 되고 있다. IT 중심의 자율주행이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서 운전자의 운전이 필요없고, 운전석이 없는 레벨 4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되면 실내 공간과 사용자 사용성이 중요해지면서 역시 IT 기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 자율주행 택시 ZOOX



Electric Vehicle

IT 주요 업체들의 동향

주요 IT 관련 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먼저, 테슬라와 아마존의 자율주행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에서 차량을 공급 받고 자율주행 업체인 죽스(Zoox)를 인수한 아마존은 자율주행 배송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였던 애플과 구글은 자율주행에서도 경쟁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웨이모가 차량 자체보다는 도심 자율주행 서비스에 더 주력한다면, 애플은 달리는 스마트폰과 같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차량용 AI 패권 경쟁과 퀄컴의 뒤늦은 추격도 주목된다. 자체 개발한 AI칩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는 오토라벨링 및 시뮬레이터 등 인공지능 기술, 서버용 칩셋 개발 및 슈퍼컴퓨터도 발표한 바 있다. 엔비디아도 볼보, 벤츠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율주행 플랫폼의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퀄컴도 GM 등과 협력하면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5G 및 V2X 등 통신 영역을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LG, 삼성과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크게 성장한 카카오를 비롯해서, 네이버, SK텔레콤, KT, LG U+ 등 여러 IT 업체들이 관련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전기자율차와 서비스의 진화, 우리의 과제는

흔들림없이 주행하는 차량에서 책을 읽고, 영화를 보려면 진동이 없는 전기차가 필요하고, 진동을 줄이기 위한 타이어, 서스펜션과 도로 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종합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용 차세대 타이어도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전기자율차와 서비스의 진화를 위해서는 센서, 인식, 인공지능, 통신,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고려와 사용자의 사용성을 위한 고려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 관련 업체들의 많은 투자와 개발도 중요해지고 있다. IT 중심의 발전이 중요해지는 미래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본다.

X세대가 돌아왔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X세대가 돌아온다. 그런데 이제 10대(Teenage) 감성을 가미한 엑스틴이다. 지금까지는 MZ세대에 밀려 관심을 덜 받았지만, 새롭게 사회의 중심 세대로 진입하는 이들에게 다시 집중해야 할 때다.

teen



도무지 알 수 없는 X세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있다. 정치·사회·경제·문화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트렌드를 이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태어난 이들은 조직보다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이라고 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거침없다. 그런데 국가보다 개인, 조직보다 나에 집중하는 게 MZ세대가 처음은 아니다. Z세대가 태어나기도 전인 1990년, 세기 말을 뒤흔든 X세대가 있었다.

X세대는 1970년대 전후로 태어나 1990년대에 학창 시절을 보낸 세대로, 미지수를 뜻하는 알파벳 'X'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대'라는 의미에서 붙었다. X세대라는 표현은 1991년 캐나다 작가 더글러스 코플랜드(Douglas Coupland)가 쓴 소설 <X세대(Generation X: Tales for an Accelerated Culture)>에 처음 등장했다. 이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거부하는 이질적인 집단이지만 특별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X를 붙인 것이다.

X세대의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인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격변기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그 이듬해에는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됐다. 1980년대 후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의 성과가 드러나고 저유가·저금리·저달러의 3저 현상으로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면서 자율과 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X세대는 꼭 필요하지 않아도 즐거움과 자기 표현을 위해 소비하는 첫 세대가 됐다. 대중문화 역시 급물살을 탔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으로 대중가요계는 10대 취향으로 재편됐고 팬덤 문화가 탄생했다. 여기에 PC와 삐삐는 놀이와 커뮤니티의 영역을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규모로 확

is
Back

장시켰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즈음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렸고 30대에 접어들어서는 아이폰과 카카오톡이 출시됐다. X세대는 민주사회로의 이행,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대중문화의 폭발적 확산 등 현대사회의 전환점을 모두 경험하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경제적·문화적으로 풍요로운 10대 시절을 보낸 X세대가 자유롭고 개인주인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들은 ‘야타족’, ‘오렌지족’ 등 술한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지금의 MZ보다 사회에 더 충격을 던졌다. 기성세대들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야 할지 당황스러워했고 온갖 이슈의 중심에는 늘 그들이 있었다. 통굽 신발에 배꼽티를 입은 짧은 머리의 여자, 긴 치마를 입고 귀걸이를 한 남자 등 X세대의 패션을 보고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의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하는 기성세대들에게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조크드요”라고 당당히 응수했다. 한 광고회사는 X세대를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였으며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했던 세대로 경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던 세대”라고 정의했다. 조국의 발전을 위해 절약과 근검을 모토로 자신을 희생해온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달랐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엑스틴

엑스틴(X-teen)은 1970년대 생으로 10대 자녀와의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10대 같은 X세대를 뜻한다. 예전에는 40대라면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꼰대 이미지가 강했지만 40대가 된 X세대, 엑스틴은 여전히 젊다. 젊을 때부터 새로운 것을 적극 시도한 덕분에 나이 먹어서도 시대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인다. 여전히 ‘나’에게 집중하며 개성을 존중하고 자신의 취향과 주장을 거리낌 없이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자유롭고 진보적인 DNA를 Z세대인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줬다.

엑스틴은 자녀와 어울리는데 익숙하다. 10대 자녀에게 필터를 이용해 셀카 찍는 법을 배워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고, 숏폼 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올릴 영상을 함께 찍기도 한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춤을 추거나 챌린지를 하는 이 영상들은 #가족틱톡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올려져 2021년 3월 기준 조회 수 4,390만 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엑스틴을 대상으로 구독 패키지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물어본 결과,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솔 게임기 대여나 게임 구독을 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엑스틴이 자녀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엑스틴은 자녀에게 공부와 높은

경제적·문화적으로 풍요로운 10대 시절을 보낸 X세대가 자유롭고 개인주인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통굽 신발에 배꼽티를 입은 짧은 머리의 여자, 긴 치마를 입고 귀걸이를 한 남자 등 X세대의 패션을 보고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의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하는 기성세대들에게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조크드요”라고 당당히 응수했다.





성적을 요구하는 대신, 자녀 스스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지원한다. 최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10대 사장', 'Z세대 사장님'의 뒤에는 자녀가 처리하기 힘든 세금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 관련 조언을 해주는 든든한 엑스틴 부모가 있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게 MZ세대라면 이들을 정착하게 하는 것은 엑스틴이다. 엑스틴은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트렌드에 관심이 높으며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받아들일 자세도 되어있다. 앞서 5060세대가 가족을 위한 소비에 집중했다면 엑스틴은 나를 위한 소비'도' 놓치지 않는다. 40대 남성들이 메이크업이나 피부관리 제품을 구매하거나, 20~30대 여성들이 주로 구입하는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인 MINI 구매 비중의 41%를 4050세대가 차지한다. 덕질에도 거침없다.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소속사의 주식을 굿즈 모으듯이 사모으고, 커뮤니티에서 방탄소년단의 콘텐츠를 함께 즐긴다. 모든 디지털 문물의 변화를 겪은 세대답게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패션쇼 플랫폼 '퀸잇'은 론칭 9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가 140만 건을 넘어섰다. '마켓컬리'의 전체 이용자 중 40대가 35.4%를 차지한다.

엑스틴, 대한민국의 허리가 되다

조직 내에서는 MZ세대가 부상하면서 세대 간 중재자로서 엑스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과거 윗세대들이 살아온 배경과 언어를 이해하면서도 아래세대처럼 탈권위와 탈권위를 외치는 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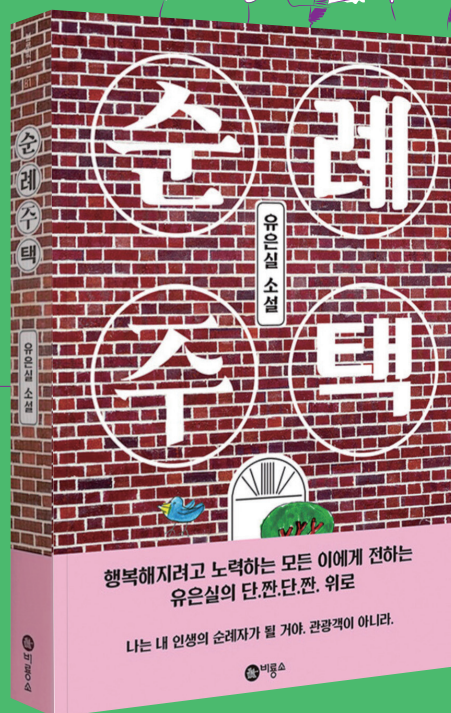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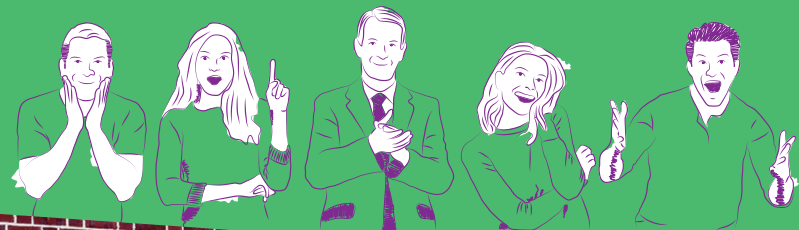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게 MZ세대라면 이들을 정착하게 하는 것은 엑스틴이다. 엑스틴은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트렌드에 관심이 높으며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받아들일 자세도 되어있다.

서 두 세대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IMF와 금융 위기를 겪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엑스틴은 마냥 호의적이고 낭만적인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조직에 수직적인 위계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인정받기 위해 윗세대의 관행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업무가 디지털화·정보화되면서 선배들의 노하우가 쓸모 없어져 자 스스로 프로세스를 만들어냈다. 그러다 보니 A부터 Z까지 세세하게 정리한 매뉴얼과 가이드에 기반한 '마이크로 매니징(Micro Managing)'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MZ세대들은 엑스틴에게 명확하고 친절한 매뉴얼의 업무지시를 요구한다. 윗세대는 자신들처럼 팀을 확실하게 이끌지 못하는 40대 직원들이 답답하고 못마땅하게 여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깁 세대', '식빵 세대'라고 불리는 엑스틴에게 조직은 실무와 더불어 책임(관리)도 맡아서 해야 하는 '플레이어 코치'의 역할까지 요구한다. 끈대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가검열도 한다. 검색창에 '끈대'를 가장 많이 검색하는 연령은 50대가 아닌 40대이며, 끈대력 테스트를 많이 시도하는 연령도 엑스틴이다. 이래저래 심리적·육체적 부담이 높고 피로가 쌓여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X세대는 여전히 중요하다. 엑스틴이 40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허리'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선 엑스틴은 인구 규모가 크고 지출이 많은 세대다. 2021년 7월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40대 비중이 15.9%로 50대 다음으로 많다. 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덕에 전 생애에 걸쳐 가장 높은 지출이 이루어진다. 당분간 대한민국 소비시장은 엑스틴이 이끌 것이다. 혁신과 진보의 DNA를 가진 새로운 중년 소비자로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는 또 한 번 패러다임의 격변을 맞이할 것이다. X세대, 엑스틴이 돌아왔다.

X-teen
is Back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어느 날 문득 '나는 지금 무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루하루는 지나가고 나는 생활의 부속품같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다. 이럴 때는 휴식이 필요하고 머릿속을 비워 두고 나를 어루만져 줄 책이 필요하다.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 누구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끔씩 그리운 친구가 생각나듯 떠오르는 대목이 있을 것이다.

무기력한 일상에 사람의 온기는 필수!



“수림아,
어떤 사람이
어른인지 아니?”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유능한 세신사였던 김순례 씨가 마흔다섯 살에 1층 양옥 집을 사서 허물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바로 순례주택이다. 사람들은 순례 씨가 때를 밀어주고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하여 때 탐이라고 한다. 순례 씨는 임대료를 시세에 따라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만 받아 순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1층 상가에는 미용사 조은영 씨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2층 살림집과 함께 들어와 살고 있다. 3층에는 순례 씨 직장동료였던 이군자 씨 부부와 다른 호수에는 박사이면서 대학 시간강사

인 허성우 씨가 살고 있다. 4층에는 혼자인 영선 씨가 산다. 201호에 살았던 박승갑 씨는 순례 씨의 20년 연인이었는데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 박승갑 씨의 재개발 아파트에 대학 시간강사인 사위와 딸이 들어와 살면서 불편해진 박승갑 씨는 순례주택에 방을 얻어 나가게 된다. 하지만 박승갑 씨 딸 가족이 쫓막 망해 박승갑 씨가 살던 순례주택 단칸방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 이 소설은 박승갑 씨 손녀 수림이의 시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유은실 작가의 특색 튀면

서도 살아있는 캐릭터들의 대화가 일품이라고 할 수 있다. 순례주택을 평소 업신여겼던 수림 엄마의 못 말리는 대소동과 못 배웠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순례주택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좌충우돌 통쾌하기 그지없다. 읽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순례주택으로 들어가 순례 씨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순례 씨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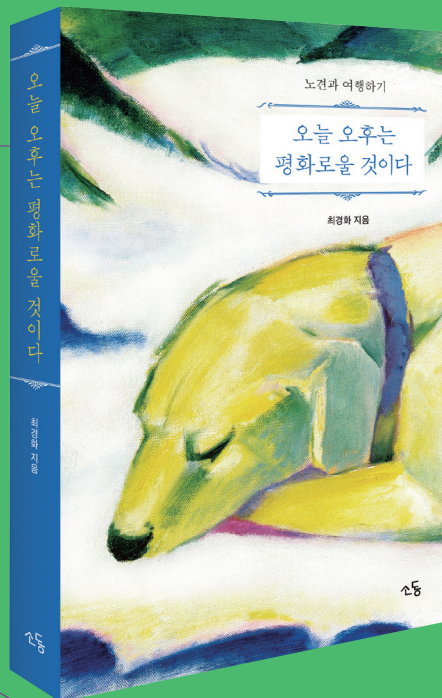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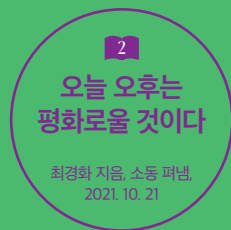
저자는 포르투갈에서 사는 한국인으로 포르투갈 남자와 결혼해 살고 있다. 개가 있어야 행복한 영장류이면서 개와 산책하는 틈틈이 그림을 보고 글 쓰고 바느질을 한다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있다. 이 책은 2020년 팬데믹 기간에 병든 노견과 부부가 함께 한 달 동안 포르투갈에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 지낸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연두는 태어날 때부터 발가락 수가 모자라는 개였다. 유기견 입양소에서 누군가 포기했던 6살 된 연두를 데려와 10년만 같이 살자고 했는데 5년 만에 겨드랑이에 지방종이 생겨 비만세포종

과 간염으로 다리를 질뚝거리고 통증을 느끼게 된다. 노견의 마지막 한 달을 자동차로 여행하고 어느 평화로운 오후에 하늘나라로 보내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반려동물 여권과 수의사 소견서 등 연두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함께 국경을 넘고 머물면서 찍은 연두의 사진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려주고 있었다.

연두의 다리가 불편해 계단 있는 집에 머물 때는 안아주고 연두가 고통을 느끼고 식음을 전폐하면 동물병원을 찾아 치료를 해주고 식단을 달

리 해보기도 했다. 일기형식으로 일정을 알려주고 도착하는 곳의 위치를 지도로 안내해 주면서 장소에 대한 설명과 만난 사람, 주변 자연과 건축물 등을 사진과 글로 친절하게 소개해 주었다. 그러면서 연두의 마음을 헤아려 되도록이면 뛰어다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고통만 느끼는 연두를 데리고 포르투갈로 돌아와 병원에서 편하게 보내주고 호수가 보이는 소나무 아래 좋아하는 장난감과 함께 묻어준다. 저자는 우리에게 예상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으니 함께 하는 시간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자, 차를 타면
즐거운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강변, 해변,
들판을 쏘다녔다.
물론 나중에는 병원도 갔다.
그러나 연두에게 차는
놀러 가기 위한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다.
“덜컹거리는 기계에
올라타면 인간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어!”
연두는 차 문을 열면
신나서 뒷좌석에
펄쩍 뛰어오르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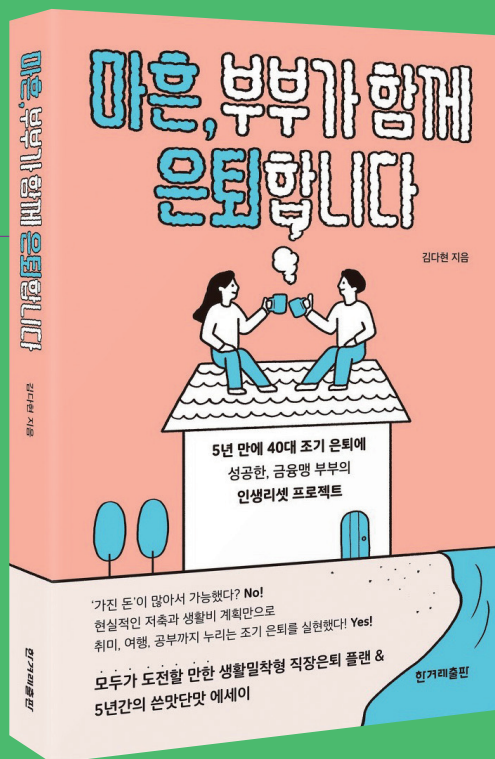




3

마흔, 부부가 함께 은퇴합니다

김다현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2021. 7. 21



“엄마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책을 읽으며 보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행복하다.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는 대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사회생활을 돌이켜
보면 그렇게 보낸
시간들로 얻어낸
것들이 공부에서 얻은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내 삶에 작용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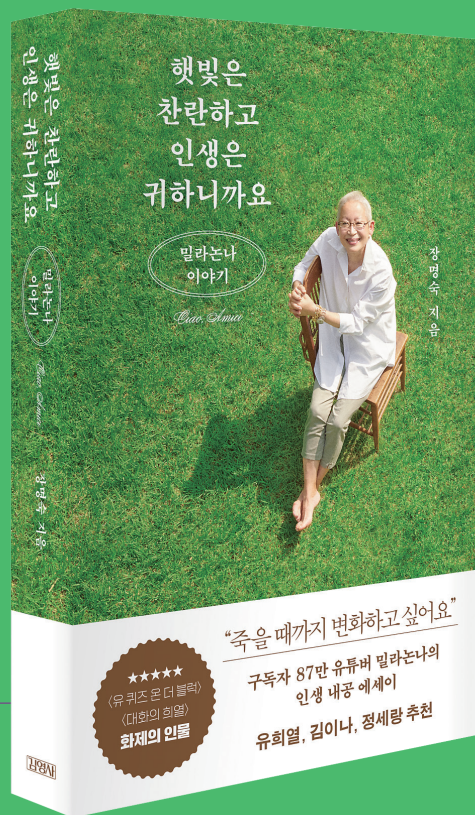
집도 없었고 주식도 몰랐던 부부가 마흔에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을 써놓은 이야기로 현실 직장인 다현 씨의 7단계 은퇴여정이 자세히 소개된 책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퇴는 시간에 이끌려 가고 사람에 치진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이지 끝은 아니라고 한다. 인생 2부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닌 저자는 점점 지치기만 하고 건강도 잃어가고 있었다. 남편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으로 저자가 일하는 포털 서비스 만드는 회사에

오면서 만나게 되었다. 가정주부로 살아보고 싶은 남자와 항상 일탈을 꿈꾸는 여자가 만나 '부부 공동 은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남편이 먼저 퇴직을 하고 6개월 후 저자가 퇴직을 하게 된다. 일단 마흔에 은퇴하고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과 주변의 시선을 감당하는 부분은 실감이 났고 그래도 이 부부가 마음을 다잡고 자금 계획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주식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실천에 옮겨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신기했다.

두 부부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지만 지금은 살림초보 부부이다. 그래도 서로

를 존중하며 역할을 나누어 자기 길을 다시 찾아 나가는 과정을 저자의 글을 읽고 있다 보면 순간 열심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저자는 퇴직 후 직업란에 아무것도 적을 수 없어서 서글펐다고 하지만 지금은 쫘뼛쫘뼛한 글을 쓰는 브런치 작가로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다.



“사는 게 특별하지 않다. 배고프면 간단히 요기하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더우면 시원하게 입고 자고 싶을 때 작은 내 한 몸 편안하게 누울 잠자리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울로족, 파이어족, 모두를 응원한다. 독립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그들 삶에 손가락질할 수 있단 말인가.”

“기성세대는 인생을 속제 풀듯 살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속제처럼 살게 해줍니다.”

이 책은 한국인 최초 밀라노 패션 유학생, 서울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의상 디자이너, 지금은 구독자 수 100만 명을 향해 달려가는 유튜브 밀라논나 장명숙의 못다 한 이야기이다. 1952년생 멋쟁이 할머니라고 하지만 나이만 들었을 뿐 생각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깨어 있고 유연하다. 그래서 이 책은 모든 세대에 위안과 희망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방송에서 인생 보따리를 조금은 풀었지만 성공보다는 성장을 권유하는 어른으로서 할 말을 책에서 조곤조곤 풀고 있다. 그녀의 검소한 라이프 스타일과 유행을 따라하지 않는 소신 있는 생활습관, 자연스레 습득한 봉사 등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그녀의 이야기들

은 ‘밀라논나에게 스며든다’라는 의미로 ‘밀며든다’라고 한다.

인생 후반부에 들어간 저자이지만 그녀는 남이 보더라도 괜찮은 삶보다 내가 보더라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낫다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려주고 있다.

사람과 물건, 옷에 대한 생각, 가족과 친구, 후배들에게 건네는 이야기 등 평소 들려주고 싶은 자기 이야기를 조곤조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녀만의 어록들이 너무 멋져서 힘을 때마다 책을 열어보게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축구 선수를 손꼽자면, 단연 리오넬 메시(Lionel Messi)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다. 두 선수 모두 '축구 천재'라는 별칭이 따라붙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만큼 많은 관중을 끌고 다닌다. 이들이 인기를 얻게 된 이유로 라이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축구계의 전설을 향해 달려가는 세기의 라이벌!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Lionel Messi

스페인 클럽
최초로 트리플

발롱도르상
수상

4년 연속
UEFA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자

3년 연속
프리메라리가
최우수 선수

지금의 메시와 호날두가 있기까지

메시는 1987년 6월 24일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태어났다. 축구 코치였던 아버지와 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형제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축구를 접했다. 또래 아이들보다 체구가 작았지만, 축구에 남다른 재능을 지녔다. 소문을 들은 뉴웰스 축구교실은 당시 6살이었던 메시를 스카우트했다.

그러나 메시에게 시련은 일찍 찾아왔다. 11살에 신체적 성장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하는 성장호르몬결핍증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때 세계 최고 축구 팀 FC 바르셀로나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메시의 치료 비용은 물론 가족의 생활비도 지원했다. 이후 메시는 FC 바르셀로나 청소년 팀을 거쳐 바르셀로나 C팀, B팀 등에서 실

력을 펼쳤다. FC 바르셀로나의 호셉 가르디올라 감독은 메시가 잠재된 능력을 아낌없이 펼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결과 FC 바르셀로나는 2008~2009년 시즌 스페인 클럽 최초로 트리플을 이뤄냈고, 메시는 발롱도르상 수상에 이어 4년 연속 UEFA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자, 3년 연속 프리메라리가 최우수 선수 등의 기록을 세웠다.

호날두는 1985년 2월 5일 포르투갈 마데이라섬에서 태어났다.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로 인해 집안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호날두는 유일한 행복인 축구를 틈틈이 연습했고, 9살에 안도리냐 팀에 들어가 빠른 스피드와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선수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덕분에 지역 최고 팀인 나시오날, 포르투갈 최고

팀인 스포르팅 CF를 차례로 이적했고 한 시즌에 16세 이하, 17세 이하, 18세 이하, 2군, 1군 팀을 뛰며 활약했다.

2003년에 '영국 축구 사상 몸값이 가장 비싼 10대 선수'라는 호칭과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와 계약을 맺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3연패를 이끌었다. 2007년 영국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2008년 세계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와 발롱도르상, 유럽축구연맹 올해의 선수를 수상했다. 역대 최고의 연봉을 받으며 레알 마드리드로 팀을 옮겼고, 2010~2011년 시즌에는 53골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호날두가 최고의 축구 선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감'이다. 가장 먼저 연습장에 나오고, 마지막까지 연습장에 남아 완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두 축구 천재의 뜨거운 대결은 계속된다

메시와 호날두는 축구계에서 '세기의 라이벌'로 불린다. 이전에도 라이벌로 유명한 인물들은 있었지만, 동시대에 비슷한 연령과 조건을 가지고 실력을 겨룬 적은 드물다. 메시는 170cm도 안 되는 작은 키이지만, 폭발적인 스피드와 균형 감각, 드리블 능력 등을 가졌다. 그리고 호날두는 187cm의 큰 키에 명품 헤딩슛과 탁월한 위치 선정 능력, 무회전 프리킥 등을 갖췄다. 이들의 라이벌 역사는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로 팀을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세계 최고인 2명의 축구 스타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경쟁을 펼치게 된 것이다. 두 선수가

속한 팀이 최고 수준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가장 먼저 맞붙은 경기는 2009~2010 시즌이다. 먼저 메시가 34골을 넣어 26골의 호날두를 제치고 득점왕을 차지했다. 다음 시즌에는 호날두가 40골을 넣으며 31골의 메시를 이겼다. 대표적인 라이벌 매치는 2012년 10월 8일 캄프 누에서 열린 엘 클라시코 경기이다. 선제골을 호날두가 먼저 냈으나, 곧이어 메시도 동점골을 넣었다. 그리고 메시가 프리킥 골로 역전했지만, 마지막에 호날두가 골을 넣으며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났다. 이 경기는 두 선수의 라이벌 의식이 잘 나타난 명경기로 손꼽히고 있다.

진정한 라이벌은 서로를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게 만들어주는 관계이다. 메시와 호날두는 대립이 아닌 상생의 라이벌로서 실력 향상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메시는 파리 생제르맹 FC에서,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에서 선수로 활약 중이다. 이 두 '축구 천재'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레이스가 끝났을 때 두 선수는 축구계의 전설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호날두는 유클리드 기하학과 닮았다면, 메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닮았다. 그래서 호날두의 슛은 직선을 향해 놀라울 정도로 빠르며, 메시의 슛은 예측할 수 없는 커브를 그린다.”

- 스페인 작가 '마누엘 빈센트'

영국 축구 사상
몸값이 가장
비싼 10대 선수

영국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발롱도르상
수상

유럽축구연맹
올해의 선수

Cristiano Ronaldo



넥센타이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미래 컨셉 타이어 3종 개발

산학협력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

넥센타이어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한 미래 컨셉 타이어를 공개했다. 넥센타이어는 미래 컨셉 타이어 3종, '캉커러', '퓨어백', '엔그립'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KDM+(Korea Design Membership Plus) 소속 제품디자인 분야 전공 9명의 학생과 협업해 제작했다고 10월 12일 밝혔다. KDM+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다양한 실무형 디자인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는 제도다.

먼저, '캉커러(CONQUEROR)'는 겨울철 빙판길에 특화된 트랜스포م 타이어로 평소에는 사계절 타이어의 형태를 유지, 스마트 센서가 미끄러운 노면을 감지하게 되면 트레드의 스파이크가 돌출되어 빙판길 주행 안정성 및 기동성을 향상시켜준다.

'퓨어백(PUREBACK)'은 타이어의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 타이어로, 트레드 사이의 흡입구를 통해 주행 중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실시간으로 중앙 캡슐에 저장해 효과적으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마지막으로, 자유자재로 벽을 오르는 도마뱀 발바닥의 원리를 적용한 '엔그립(N-Grip)'은 고속 주행, 코너링 등 접지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특수 패턴을 가진 내부 트레드가 돌출되어 '반데르발스 힘(분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발생시킴으로써 고도의 접지력과 주행 안정성을 제공한다.



N blue 4Season Van



넥센타이어, '엔블루 포시즌 밴'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모든 기후 조건에서
탁월한 성능 발휘하는
밴 차량용 올웨더 타이어

넥센타이어가 '2021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G-Mark)'에서 분상을 수상했다. 독일의 '레드닷',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는 1957년부터 일본디자인진흥원(JIDP)이 주관하는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디자인, 사용성, 혁신성, 친환경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작에게 'G-Mark' 심볼을 부여한다.

올해 수상작인 '엔블루 포시즌 밴'은 모든 기후 조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밴 차량을 위한 올웨더(All Weather) 타이어다. 젖은 노면에서 원활한 배수 성능을 위한 폭넓은 종 횡 방향 그루브와 스노우 성능을 강화하는 물결 형태의 커프를 적용하여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최적의 패턴 디자인으로 도로와의 접지면을 고르게 유지시켜 이상마모 현상을 방지했으며, 평소 무거운 하중이 실리는 밴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구조와 긴 내구성을 가진 컴파운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사이드월에는 4방향에 양각 다이아몬드-컷팅 패턴을 적용하여 고급스럽고 견고한 이미지를 구현함과 동시에 외부 충격, 연석 등으로부터 내구력을 발휘하도록 고려했다. 또한, 올웨더 전용 마크 각인을 통해 제품의 특징을 드러냈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다.



넥센타이어 국가품질경영대회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이 11월 9일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품질관리 및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전략 및 관리시스템, 정보관리, 물류, 소집단-제안 활동 등 13개 항목을 심사해 우수기업 자격을 부여한다.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은 품질시스템, 제품개발 및 기술력, 고객만족, 신뢰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품질분임조 부문 시상에서는 2개 팀이 참가해 현장개선부문 「물도 교체공정 개선으로 작업시간 단축」 사무간접부문 「이재기 프로세스 개선으로 출고처리시간 감소」를 주제로 대통령상 은상을 수상했다.



넥센타이어 '제23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지난 12월 17일에는 '제23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은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브랜드 경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브랜드 육성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업체 및 기관, 지자체에 포상하는 상이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5년부터 업계 최초 타이어 렌탈 서비스인 '넥스트레벨 렌탈'을 시행하며 고객이 타이어 수량과 서비스 횟수를 선택하여 월 렌탈료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유 렌탈' 상품을 비롯, 다양한 맞춤형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중심 서비스를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타이어를 교체하는 방문 장착 서비스인 '넥스트레벨 GO'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넥센타이어, 천연고무가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발표 등 ESG 경영 강화

글로벌 플랫폼 GPSNR 가이드에 맞춰
지속가능한 천연고무 정책 발표

넥센타이어가 지속가능한 천연고무 가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천연고무 정책을 제정해 발표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천연고무 공급자뿐만 아니라 재배자, 가공자 등 천연고무 공급망 구성원들과 함께 생산지역 사회 주민들의 소속 국가 사회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며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 환경 및 인권 보호 조치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천연고무 정책 제정은 GPSNR(Global Platform for Sustainable Natural Rubber)의 가이드에 맞춰 수립됐다. GPSNR은 타이어 제조사, NGO(비영리 시민단체), 고무 재배자 및 가공자가 협력해 만들어진 지속가능한 천연고무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넥센타이어는 2020년 GPSNR에 가입했다.

먼저, 해당 정책 이행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공급망 평가 수행과 파트너들의 정책 준수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천연고무 관계자들의 환경 영향 최소화를 요구하고, 환경보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에 따른 어떠한 영향도 반대함을 발표했다. 건강한 생산 지역 및 사회 운영을 위한 지지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수립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ESG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고 충실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넥센타이어,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통해 ‘아름다운가게’에 물품 기증

넥센타이어가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캠페인을 펼치며 ESG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월 7일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마련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류, 책, 가전제품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증 받았다.

기증받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하고 판매해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 재사용 및 재순환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국내외 소외계층을 돕는 비영리공익재단이다. 캠페인 참여자는 기증을 통해 개인별 기부영수증을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넥센타이어는 자원의 나눔과 순환 활동을 통해 환경을 지킬 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도 도울 수 있어 더욱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며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next century
ventures



넥센타이어 CVC 자회사 'Next Century Ventures', 미국 UAM 스타트업에 투자

넥센타이어의 벤처캐피탈 자회사 'Next Century Ventures'가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미국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스타트업 'ANRA Technologies'에 투자하며 미래 모빌리티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Next Century Ventures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친환경차,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적 신기술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첫 투자로 UAM 영역을 선택했다. UAM은 지상 교통의 한계를 넘어 도심 환경에서의 사람과 화물의 이동 및 운송을 항공의 영역으로 가져간 최첨단교통체계로서, 드론 택시, 에어 택시 등을 활용하여 도로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ANRA Technologies'는 UAM 영역 중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시스템(UTM, Uncrew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UTM은 미래 모빌리티 수단인 도심항공교통의 교통 관제탑(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UAM 분야의 필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ANRA Technologies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NASA(미 항공 우주국) 및 FAA(연방 항공국)와 UTM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EU에서도 EASA(유럽항공 안전청)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NASA와 EASA에 모두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UAM 영공 솔루션 업체이기도 하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주)넥센과 공동 투자로 올해 3월 국내 타이어업계 최초로 실리콘밸리에 벤처캐피탈 자회사인 'Next Century Ventures'를 설립했다.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동료와의
소중한 추억을
소개해주세요
/

/
가족과의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주세요
/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헬로우 넥센>

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hellonexen@nexentire.com

<헬로우 넥센> 신년호 이벤트 참여

<헬로우 넥센>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단의 QR 코드 스캔하기



이벤트 참여하기



인적사항 기입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프티콘 증정)

당첨자 확인과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we got you

소리 없이
편안 하니까!

N FERA Supreme
PC / SUV

NEXEN NEXEN TIRE



NEXEN
NEXEN TIRE

OFFICIAL PARTNER OF
MANCHESTER CITY FOOTBALL CLUB



NEXEN TIRE

NEXEN **NEXEN TIRE**
we got you